

팜플렛

등록  
번호

1000007400

등○국회도서관○록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3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義兵戰爭과 西大門刑務所

- 
- 일 시 : 2001年 11月 2日(金) 오후 2시
  - 장 소 : 독립관 지하 강당 (서대문독립공원 내)
  - 주 최 : 서대문구청
  - 후 원 : 광복회, 순국선열유족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 인 사 말 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3주년을 기념하여 '의병전쟁과 서대문형무소'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서대문형무소 순국선열이신 한말 의병장 이강년·이인영·허위 애국지사의 의병투쟁과 옥중체험기를 접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학술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형무소는 대한제국 말에 일제의 강압으로 지어져 지난 80여년간 우리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과 민족의 한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표적인 탄압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1987년 서대문형무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옮겨간 후 퇴색되어 버린 이곳을 애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삼기 위해 지난 1998년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이를 위해 1995년부터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를 우리 민족 자주독립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역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1995년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하여 무단방치되어 옥사 지붕은 내려앉고 주변은 폐허화되어 가고 있는 서대문형무소를 둘러 보고, 애국선열들의 혼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신념으로 서대문형무소 성역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995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년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옥사와 사형장, 보안과청사 건물을 보수·복원하였고, 이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거나 투옥하신 애국지사들의 행형기록 및 유물을 발굴·수집하여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관 이후 줄을 잇는 시민들의 호응으로 일일평균 2,500여명, 연인원 150만명의 많은 내·외국인이 관람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백범서거 50년 기념 KBS열린음악회, 광복절 기념 음악회, 순국선열 추도식, 역사교실, 호국글짓기대회, 역사관 예술제 등 각종 문화이벤트행사 개최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역사관을 방문하여 서대문형무소 순국선열 추모비에 헌화하고 사죄의 코멘트를 발표하는 등 명실상부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로서 국내 유일의 형무소박물관으로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심포지엄을 통해 참된 나라사랑의 마음과 선열들이 간절히 원하던 자주독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1. 11.

서대문구청장 이 정 규

## 행사진행 순서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3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개 외 식

14 : 00 ~ 14 : 30

- 국민의례
- 기 념 사 : 이정규 서대문구청장
- 축 사 : 참석내빈

### 주제발표

제1주제 14 : 30 ~ 15 : 00

- 운강 이강년 의병장과 서대문형무소  
: 박성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제2주제 15 : 00 ~ 15 : 30

- 한말 의병장 이인영과 서대문형무소  
: 오영섭(연세대학교 연구교수)

휴 식 15 : 30 ~ 15 : 50

제3주제 15 : 50 ~ 16 : 20

- 허위의 의병투쟁과 서대문형무소  
: 이현희(성신여대 교수, 서울시 문화재위원)

### 종합토론

16 : 30 ~ 17 : 30

- 사 회 : 김삼웅(대한매일 주필)  
김호일(중앙대 교수),  
정제우(前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정영희(인천시립대 교수)

### 폐 회

17 : 30

# 目 次

## 제1주제 운강 이강년 의병장과 서대문형무소 | 朴成壽 1

---

1. 머 리 말 .....	3
2. 성 장 기 .....	4
3. 을미의 병 .....	5
4. 정미의 병 .....	10
5. 3.3.5.5 전법 .....	16
6. 서대문형무소와 이강년 .....	17
7. 맺 는 말 .....	26

## 제2주제 한말 의병장 이인영과 서대문형무소 | 오영섭 29

---

I. 머리말 .....	31
II. 가문 배경 및 학문·성향 .....	33
III. 을미의병운동 .....	35
IV. 정미의병운동 .....	39
1. 관동창의군의 결성과 활동 .....	39
2. 13도창의대진소의 결성과 서울진공작전 .....	46
3. 거의 목적과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순국 .....	52
V. 맺음말 .....	56

1. 序 論 .....	61
2. 許蔭의 成長과 學問 .....	62
3. 前期 義兵鬪爭과 改革案 .....	65
4. 檄文의 公布와 抗日鬪爭 .....	70
5. 後期 義兵鬪爭과 13道倡義軍 .....	73
6. 許蔭의 殉國과 서대문형무소 .....	80
7. 結 論 .....	86

# 운강 이강년 의병장과 서대문형무소

朴成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제1주제**

1. 머리말
2. 성장기
3. 을미의 병
4. 정미의 병
5. 3.3.5.5 전법
6. 서대문형무소와 이강년
7.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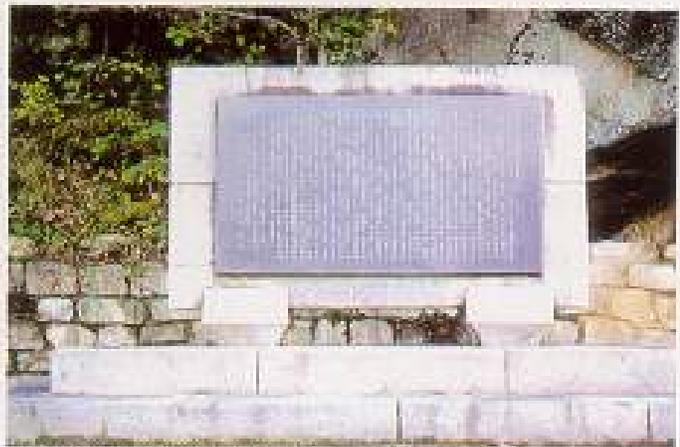
이강년(李康年) 의병장의 영정



일제에 의해 폐허가 된 중북 계곡



윤강이강년선생전희추모비  
(兪綱李康年先生戰蹟追慕碑)



이강년선생기념비(李康年先生紀念碑)

# 운강 이강년 의병장과 서대문형무소

朴 成 壽(한국정신문화연구원 명예교수)

## 1. 머 리 말

운강 이강년 장군에 대한 기록으로는 『운강선생창의록』이 있는데 일찍부터 『독립운동사자료집』 1권에 국역되어 장군의 생애와 투쟁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러나 장군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명한 의병장이면서 연구되지 않은 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나온 이강년 장군(여기서는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장군이라 부른다)에 대한 단행본 『운강 이강년, 장점을 치켜들다』(신군식 편, 2001) 《이 책은 기왕에 나온 이석재,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1993)에 「운강이강년선생문집」을 보탠 보유편이다》은 그동안 소홀했던 연구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의병의 나라 한국에서 의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적은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말의병장에 대해서 특히 소홀했던 이유는 학계의 근대사 서술이 개화론에 편향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친일개화파를 망국노로 보는 수구유생들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이것은 재래의 교과서 서술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 모임에서 이강년을 비롯해서 이인영 허위 등 대표적인 한말 의병장을 소개하게 된 것은 늦으나마 의미심장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일찍이 이강년 의진의 도선봉장을 지낸 백남규白南奎(1884-1970) 옹 생존시에 직접 만나 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일이 있었다. 그 때부터 이강년 장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오다가 다시 이강년 의진에서 소모후군장을 지낸 신태식申泰植(『운강창의록』에는 申台植으로 나온다)의 申議官倡義歌를 읽고 한층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을미의병의 노병이 12년이나 지난 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 높이 평가하여야 할 일인데 13도창의군의 서울탈환작전이란 역사적 사건을 남긴 사실은 어떤 다른 사건보다 더 높이 평가하여야 할 사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2. 성장기

운강 이강년(雲岡 李康季 1858-1908) 장군은 철종 9년 무오(1858) 경북 문경군 완장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는 이기태李起台, 어머니는 의령 남씨였다. 자는 낙인樂仁, 호는 운강, 본관은 전주였다. 어머니 남씨가 이강년 장군을 낳으실 때 집 뒤 둔덕산이 크게 들었다는 것이며 어머니 꿈에는 아름다운 태양이 떴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명을 출양出陽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그래서 그런지 소년시절의 이강년 장군은 그 용모와 기상이 산과 같이 높았고 또 총명하고 영특하였다 한다. 애를 써서 공부하지 않

아도 문리에 통하는 머리를 가졌다 하여 사람들은 이미 큰 그릇이라 칭찬하였다고 한다. 8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입고 곡하며 우는 것이 마치 어른과 같았다고 전한다.

장성하면서는 8척 장신에다 용력이 출중하였고 일찍부터 병서兵書를 탐독하여 1880년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무과武科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1894년 김옥균 등의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스스로 군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이강년이 오른 직함은 절충장군행용양위 부사과折衝將軍行龍驤衛 副司果로서 선전관이였다.

### 3. 을 미 의 병

11년 뒤인 1895년 10월에 을미사변이 일어나 국모(명성황후 민비)가 시해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동년 12월에는 전국에 단발령이 내렸다. 이에 먼저 강원도 영월에서 의암 유인석(毅巖 柳麟錫 1842-1915)이 꺾기하였다. 유인석은 그의 유명한 「격고팔도열읍檄告八道列邑」(1895. 12)에서 의로운 전국선비들의 총궐기를 호소하였다.

아! 우리 팔도 동포들이여. 망해가는 이 나라를 내버려 두시렵니까. 지난 갑오년 6월 갑자기 우리나라 3천리 강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당한 우리 나라가 소일본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실로 위급존망의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 기울어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이 격문을 읽고 수많은 선비들이 유인석 의진에 모여들었으나 이강

년은 그보다 먼저 독자적인 의진을 만든 뒤 유인석 의진에 가담하였다. 운강은 무과출신의 장군으로서 여느 문과출신의 선비와는 달랐다. 그래서 장군은 1896년 정월 먼저 가산家産을 처분하여 경북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경북 안동으로 진출하여 단발령을 자행한 안동의 왜관찰사 김석중과 그 졸개 이호윤·김인담 등을 체포하여 농암 장터에서 효수하였다. 이것이 장장 13년에 걸친 이강년 의병장의 항일투쟁의 시작이었다.

이때 유인석의 호좌의병진은 영월(1896년 1월 2일에서 2월 10일까지)에서 시작하여 동년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천으로 이동하여 2월 17일 충주를 점령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싸워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무혈입성이었고 얼마 못가서 3월 5일 관군에 패전하였다. 유인석의 호좌의진은 이때가 고비였다. 충주에서 패전하여 재차 제천(3월 8일부터 5월 25일까지)으로 이동하던 중 그 뒤 두 달 반 동안이나 침체상태에 들어가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이강년이 호좌의진에 합진하여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니 1906년 3월 11일의 일이었다.

이강년이 맡은 직책은 호좌의진의 遊擊將이었고 수안보 전투(1차 3월 17일, 2차 동월 23일)와 문경 전투(1차 4월 5일, 2차 동월 11일)에서 크게 이겼다. 그러나 이같은 이강년의 승전보와는 달리 제천 본진에서는 4월 13일 관군에 크게 패하여 월악산으로 패주하였다. 월악산에는 마의태자의 전설이 담긴 덕주사의 유명한 마애석불이 있다.

이처럼 호좌의진이 초전에 맥없이 패전한 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장마철이 다가와서 의병들의 주무기인 화승총에 불이 붙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호좌의진에 이필희, 서상열과 같은 무과출신 선비가 있긴 있었으나 대개가 문인들이어서 군무軍務에

서툴렀다. 거기다 셋째로 김백선 사건과 같은 신분상의 갈등이 불거져 나와 의진 지도부의 인화가 깨었다. 유인석은 이렇게 개탄하였다.

아. 원통하다 하늘이여 비바람에 온갖 것이 다 쓸쓸하구나. 대진이 한번 패하니 모든 군사들이 무너져 흩어지는구나. 탄환이나 활 같은 무기는 쓸데 없는 것이 되고 군사들은 싸우느냐 지키느냐에 대한 계획이 없으니 아! 슬픈 일이다.

이소응李昭應도 탄식하여 말하기를

폭풍이 사납게 몰아치던 그날 군사들은 싸울 마음 사라졌도다  
충의로 떨쳐 일어난 우리 예리한 적의 병기 어찌 막으리  
흉악한 칼날은 피하기도 어려워 쫓기는 말발굽 급하기만 하구나

제천전투에서는 중군장 안승우와 종사 홍사구가 전사하여 호좌의병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강년 의진이 단양에 이르렀을 때 단양군민이 소를 잡아 위로하자 “중군장이 전사하여 초상이 났는데 어찌 살아남은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배부를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거절한 것도 이 때의 일이었다.

제천에서 패한 호좌의군은 제천 월악산으로 들어가 재기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유인석은 스스로 의병군을 해산하겠다는 의견을 내어 놓았으나 모두가 반대하였다. 소모장 서상열徐相烈은 유인석 선생에게 말하기를

이제 현絃을 바꾸고 수레 바퀴를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양서지역(兩西地域, 평안도와 황해도)으로 가서 강용한 사졸士卒을 다시 모아보기로 하시지요

만일 그것이 안된다면 압록강을 건너 국경 밖으로 나아가 훗날을 도모하기로 하시지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유인석은 부대를 북한으로 이동시켜 재기의 기회를 노렸는데 기대하던 양서지역의 선비들이 호응하지 않자 할 수 없이 압록강을 도강하였다. 압록강을 도강할 때 청나라 관리가 무장해제를 요구하여 부득이 호좌의진을 해산하였다. 이 때 유인석 선생을 따라 청나라 땅을 밟은 선비는 260 여명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 머물렀다.

을미의병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고 말았는데 이강년은 이때 유인석의 본진을 따라 북상하지 않았다. 이강년은 부대를 이끌고 1896년 7월 영춘 소백산에서 눈물을 머금고 부대를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강년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1년 뒤인 1897년 5월 유인석 선생이 가계신 서간도를 찾아 나섰다. 장래의 계획을 상의하기 위해서였는데 가서 보니 차라리 내 나라에서 일할 것이지 구차하게 남의 나라에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여겨 동년 7월 귀국하고 말았다.

선생님이 요동 가시는 길을 좌우에서 모시지 못하고 압록강을 넘나드는 뱃길에서도 서로 어긋나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계획은 공하고 길은 머오나 우리 옷을 입고 우리 풍속으로 우리 땅을 지켜 문명한 지역을 만들어 계신다 하오니 어찌 다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강년이 스승인 유인석에게 글을 올려 위로하였으나 두 분이 가야할 길은 서로 엇갈렸던 것이다. 여기서 유인석 선생과 이강년 장군의 전략노선이 갈라지게 되는데 유인석은 결국 해외의병군의

지도자로 남게 되고 이강년은 국내의병군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유인석도 그 뒤 잠시 국내에 들어오게 되지만 결국은 다시 해외(노령 연해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13도창의군의 의병장직을 맡게 된다. 유인석의 생각으로는 국내에서 왜적과 싸워 보니 화승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러니 해외에서 신식무기를 가지고 적을 무찔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강년 장군의 생각은 달랐다. 아무리 여건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남의 나라에 가서 설움을 받아 가며 싸울 것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내 나라 내 동포와 함께 싸워야 한다는 소신에서였다. 문인과 무인의 차이라 할까 사제지간에 소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간도에 갔다가 실망하여 돌아온 이강년은 충북 단양 금채동에 우거하였는데 그의 8년간 우거생활에서 단 하루도 토적복수討賊復讐를 잊은 일이 없었다. 그리고 그 생활은 망국에 대한 참회와 재기의 하루하루였다. 그러기에 이강년은 자신이 지은 창의격문을 가지고 호남 각지를 돌아다녔던 것인데 전북 무안에서 관헌에게 붙잡혀 격문 모두를 소각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나를 욕하고 글을 불태움이 도리어 가소로워  
천추의 남은 버릇이 진시황의 망국을 불렀네

이처럼 이강년은 무안 군수 진모씨의 소행을 이처럼 진시황의 분서갱유에 비유하며 개탄하였다.

이강년이 그 사이에 남긴 업적이 있으니 그것은 의병정신 문화사

업이었다. 충주 병산 선비들이 화서 이항로(華西 李恒老1792-1868) 스승의 유문집遺文集을 발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강년은 이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화서 이항로는 유인석과 최익현 등 의병 지도자를 가르친 대선생이었고 그의 가르침이 곧 의병정신이었다. 화서 이항로의 문집은 목판 3300 여장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귀중한 문화재가 스승 유인석이 처음 거병을 모의했다는 자양서사(紫陽書社, 충북 제천 봉양면 공전리 장담)에서 조판되어 지금도 서고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이 목판이야말로 한말의병의 정신적 교본이다.

### 3. 정미의병

1904년 일제는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또 다시 한국침략의 야욕을 들어냈으며 이듬해 을사조약을 강제체결하여 한국을 사실상의 식민지로 만들고야 말았다. 이에 온 국민이 격분하는 가운데 을미 의병의 노장 이강년은 다시 일어섰다. 즉 1906년 겨울 이강년은 원주 신태면 배양리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훈련에 들어갔던 것인데 1907년 양 8월 1일 한국군 해산령이 내리자 원주진위대가 쫓기하여 이강년 의병과 합류하였다. 이강년은 정미재거에 즈음하여 스승 유인석에게 글을 올리기를

병신년(1896)의 의거에는 다행스럽게 선생님의 훈도를 받는 은혜를 입어 군사를 움직이는데 두려울 것이 없었으나 오늘의 재거(정미 1907)에 있어서는 제가 스스로 주관하여 운용하게 되오니 누가 있어 돌보아 주실 분이 없사옵니다. 특별한 교시를 내려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 서신에 답하여 유인석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다.

듣건데 그대가 거사하여 온 나라 사람이 두려워하고 사모한다 하니 삼가 감복한다. 오직 국면을 완결하기 바랄 뿐이다. 병이 지금이라도 낫는다면 달려가서 여러분의 휘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리하여 음 7월 7일 이강년은 충북 제천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는데 일본군은 이에 보복하여 제천시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 전소시키고 말았다. 이때 일본군사령관 장곡천은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군을 증파하여 가는 곳마다 온 마을을 소각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후일의 이른바 삼광작전三光作戰을 자행하였던 것이다. 일본군이 제천을 온통 잿더미로 만든 광경을 직접 목격한 영국인 기자 맥켄지는 “일찍이 이렇게 처참한 광경을 본일이 없다”고 기록하였다.

한편 이강년은 승전의 기세를 몰아 같은 해 7월 11일 제천 의림지 영호정에서 호서창의군湖西倡義軍을 창설하였다. 호서창의군에는 원주진위대의 대장 민공호閔肯鎬(? - 1908)가 합세하여 막강한 한국군 병사들을 거느리게 되어 전국에서 가장 막강한 의병군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국에서 모인 병사가 모두 2,000명에 달했다.

湖西倡義大將 이강년  
中軍將 안성해  
右先鋒將 백남규  
後軍將 이한웅  
右軍將 이충봉  
監軍將 이세영

등등 그 부서가 구식 군대 편제 대로 정연히 편성되었다. 중군장 안성해는 을미의병 당시의 옛 동지였다.

이 소식을 들은 고종황제는 극비리에 전 판서 심상훈(沈相薰 1854-?)을 보내어 이강년에게 밀지密旨를 전달하였다.

勅令

오호라! 나의 죄가 크고 악이 총만하여 황천이 돌보지 않으시니 이로 인하여 사나운 이웃나라가 틈을 보고 역신들이 권세를 농락하여 사천년 종사와 삼천리 강토를 하루 아침에 오랑캐의 수중으로 넘어갔도다. 생각하면 실랄 같은 나의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으나 종묘사직과 만백성을 생각하니 이것이 애통하도다. 이에 선전관 이강년으로 都體察使로 삼아 七路에 勸送하노니 양가의 자재로 각기 의병에 참여케 하고 召募將에 임명하여 印符를 새겨서 쓰도록 하라. 만일 명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와 수령을 막론하고 먼저 배고 파직하고 처리하여 강토를 보존하고 사직을 수호하는데 목숨을 다하여라. 이 문서는 비밀리에 내리는 것이니 각별히 알아서 거행하라.

광무 11년 정미 7월 일 御璽

심상훈은 또 이강년의 노고를 위로하여 침구와 방한복을 기증하였는데 이강년이 이것을 혼자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대감의 성의는 고마우나 지금 의병들이 모두 추위와 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더운 옷을 입고 두터운 이불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의병들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상훈이 이 사실을 고종에게 보고하자 고종은 탄복하였다고 한다. 한편 이강년 장군은 「각도열읍에 고하는 격문」 檄告各道列邑文을 발표하였다.

오호! 이 슬픔을 어찌 차마 말로 다하겠는가. 역적놈들이 나라 일은 마음대로 하여 비밀리에 왕위를 내놓게 하는 음모를 꾸미고 조약을 맺어 우리 국권을 빼앗고 산림천택을 제멋처럼 여기고 재정과 백성을 제 물건 보듯 하고 있다. 슬프다! 죄없는 우리 백성이 마침내 죽게 되었도다.

이강년 장군은 이어 이등박문伊藤博文에게 격문(「檄伊藤博文」)을 보냈다.

우리나라는 너희 나라와 국토가 가장 가까우니 서로 교제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통상과 교역을 족한 것이어늘 어찌 하여 무기를 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군중을 거느리고 남의 국모를 시해하고 남의 임금을 욕비이고 남의 정부를 헐박하고 남의 재물을 빼앗고 남의 풍속을 바꾸고 우리 강토를 차지하고 남의 백성을 살해하느냐. 만일 시일이 지나간다면 너희는 한 놈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니 잘 생각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이리하여 이강년 장군은 원주진위대의 민공호와 힘을 합해 먼저 충주를 공격하였다. 충주는 이 지역의 군사적 요지였기 때문에 의병의 충주 점령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두 부대는 각기 길을 나누어 충주로 진군하였는데 이강년은 청풍을 거쳐 충주로 향하고 민공호는 주포리를 거쳐 충주로 향하였다. 이강년은 8월 21일 제천을 출발하여 23일 무사히 충주에 도착하였는데 민공호는 제천의 유명한 박달재 고개에서 일본군과 조우하여 충주 도착이 늦어졌다. 기다리다 못한 이강년은 단독으로 충주성을 공격하였던 것인데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2개 소대에 이기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충주 점령에 실패한 이강년은 문경 새재를 넘어 경상북도 풍기로 남하하였고 민공호는 충주에서 경기도 장호원으로 북상하

였다. 그뒤 1908년 7월 충북 청풍의 까치성 전투에서 이강년이 유탄에 맞아 일본군에 체포되기까지 1년 3개월간 단양, 제천, 원주, 연풍, 영월, 회성, 강릉, 청풍, 충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안동 등 경북 강원 충북 일대에서 항쟁을 계속하였다. 참으로 초인적인 항쟁이었다.

장군은 충북 금산에서 왜군과 싸워 전사한 중봉 조헌趙憲(1544-1592) 선생을 추모하여 시 한구절을 지었으니 이것은 비록 시대가 다르나 임진왜란과 같은 적을 만나 싸우고 있다는 역사의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용감무쌍하다 해도 누가 가벼이 죽는단 말인가  
전군이 나라를 위해 죽으니 적까지도 놀랐도다  
무덤을 같이 한 7백 의병 천년 한이 서렸네  
빈 산에 달이 지고 아직도 의사들의 소리가 들려 오네

그리고 가장 애석한 것은 1908년 봄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북상하였으나 적의 저지로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후퇴한 사실이다. 13도창의군에는 다행히 민공호의 관동창의군이 참가하여 이강년을 대신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강년 의병부대의 험격한 전투 경력은 『운강창의일록雲崗倡義日錄』과 신의관申議官(參謀官總督將 申櫛)의 「창의가」에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가장 큰 전투로는 문경 새재 갈평전을 들수 있다. 필자가 현지에 가서 갈평대첩비를 본 것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희미하다. 현재도 그 곳에 기념비가 서있다는 전언을 듣고 있다.

## 운강 이강년의 정미의병 전력

1907. 7. 7.	충청북도	제천 풍기 도촌	일군 500여 살상
7. 30.	경상북도	문경 上屹樓	일군과 교전
8. 2.		문경 毛項嶺	
8. 3.		문경 갈평	대승하여 屍滿山野
8. 3.		문경 갈평	일군과 교전
8. 6.		문경 대성사	
8. 8.		문경 적성	후군장 신태원 패전
8. 18.	충청북도	단양 유치	
8. 27.	경상북도	영월	
8. 29.		영월 적포 독산	
9. 3.		병두	
9. 6.		연풍	
9. 16.		제천	일군 200여명 사로잡다.
9. 27.		죽령	
10. 1.		웅암	
10. 5.		단양 고리평	일군 80명을 사로잡다.
10. 1.		소백산 산정	전황 불리
10. 10.		순흥	일군을 습격하다.
10. 21.	유치	패전	
10. 23.		풍기 백자동	일군 100여명 사로잡다.
10. 25.		피화리 패전	
11. 12.		복상동 대패	
11. 21.		전동 월계봉	
12. 3.		낭천 간척리	
12. 5.	경기도	건천	
1908. 2. 17.		용소동	일군 100여명을 사로잡다.
2. 20.		대청리	
2. 26.		갈기동	일군을 유인한 뒤 격파

3. 12.	강원도	인제 백담사	
3. 30.		강릉	
4. 1.		하사동	
4. 3.		홍천 북면	
4. 4.		양양	
	경상북도	안동 석벽	
4. 6.		봉화 내성	
4. 8.		안동 재산	
5. 23.		제천 오미리	
6. 4.	충청북도	청풍 까치성	피체

이상과 같이 이강년은 1년 3개월간 수십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그것은 그가 무과출신의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을미의병 이래의 노련한 지휘관 그리고 신분을 초월한 민족정신이 그를 출중한 의병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거기다 민공호와 같은 유능한 신식 군인이 동지가 되어 막강한 일본군을 무찌르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 4. 3.3.5.5 전법

이강년 의병장은 무과에 합격한 무인 출신 의병장이었다. 따라서 병법을 아는 보기 드문 장군이였다. 이강년 부대의 편성을 보면 이른바 속오작대라 하여 십장什長이 선두에 서고 그 뒤에 화병이 서는 십장부대가 최하단위 부대가 된다. 이것을 대隊라고 한다.

이 대 셋이 1기一旗가 되므로 3대가 1기가 되는 셈이다. 기에는

기총旗總이 있어 기를 지휘한다. 다시 3기가 1초哨가 되는데 초에는 초장哨長이 있어 초를 지휘한다. 그런데 초는 5초가 1영營을 구성한다. 영에는 영장營將이 있어 각각 전·후·좌·우·중영을 지휘한다. 이 5영을 지휘하는 장이 영장이다.

즉, 대-기-초-영의 4 단계로 편성되는데 그것이 3대 3기 5초 5영의 3·3·5·5의 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대=12명 기=36명 초=180명 영=900명이 된다. 한 영장이 9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것이다. 자전에 보면 三三五五란 군중이 제각기 흩어져 질서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 실은 그 반대 현상인 질서정연한 군편제에서 나온 말이다.

이강년은 또 모름지기 군대란 수만번의 연습을 통해 자기 몸과 손을 다루듯 민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질서정연한 행군법과 신호법을 적어 예하부대장에 시달하였다.

윤강창의록에 보면 좌중사 100명의 명단이 나온다. 이들은 직접 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의병의 군자금은 동계洞契를 구성하여 각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의조義助라 하였다. 의병은 스스로 군율을 제정하여 약탈과 토색질을 엄금하고 있었다. 이강년은 특히 이 점에 엄격하여 민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 5. 서대문형무소와 이강년

이강년이 13도 창의군의 서울탈환전에 참여해 달라는 통고를 받은 것은 1907년 12월의 일이었다. 이 연락을 받고 복상하다가 단양을

지나 제천으로 향하던 중 일군의 기습을 받아 크게 패전하였다. 이 패전은 이강년이 “내가 의거한지 13년만에 이같은 참패는 당한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그래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 태백산맥을 따라 강원도 홍천과 화천을 거쳐 1908년 1월 8일 마침내 경기도내로 들어섰다. 그러나 목적지인 양주까지는 멀기만 하였다. 요소 요소에 일본군이 길을 막고 있는데다가 앞서 당한 패전 때문에 도저히 약속 장소인 경기도 양주로 가기 어려웠다.

13도창의군의 지휘부에 이강년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 있었고 동지 민공호가 또한 관동창의장으로 올라 있어 바로 민공호를 위해서라도 기어이 양주로 가야할 몸이었다. 그러나 이 서울탈환작전은 이미 사전에 일본군에 탐지되어 의병군의 진로가 곳곳에서 차단당하고 있었다. 위의 도포에서 이강년이 3월 12일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강원도 백담사로 들어간 것은 그같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강년이 부상한 곳은 청풍의 작성전투에서였다. 적이 쏜 탄환이 장군의 왼쪽 발 복숭아 뼈에 맞았던 것이다. 아마도 유탄이었을 것이다.

무정하다 탄환이여  
발목을 상하여 나아갈 수 없구나  
차라리 심장에나 맞았으면  
욕보지 않고 저승에 갈 것을

그러나 이강년은 더 이상 적과 싸울 수 없음을 알고 부하들을 후퇴하라 명령하고 자신은 숲속으로 은신하였다. 왜적은 후퇴하는 의병에는 관심이 없는 듯 쫓지 않고 부상당한 이강년 의병장만을 찾았다. 마침내 이 장군은 멀리 못가서 왜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왜적

이 접근하자 칼을 뽑아 치려고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장군은 붙잡히면서 이렇게 비장한 심정을 글로 토로했다.

오십년 내려오면서 죽기를 결단한 마음  
이제 와서 어찌 구차하게 살려고 하겠는가  
두 번이나 나와서 싸웠건만 국권회복이 어려우니  
죽은 뒤 지하에서도 계속 싸울 뜻을 버리지 않았네

왜적에 포박 당한 장군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적에게 붙들려 어찌할 수 없지만 전사자들만은 잘 땅에 묻어달라  
고 당부하였다.

장군은 적에게 잡힌 뒤 조금도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 적은 이 장군을 제천, 충주 그리고 서울로 호송하였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유혹하였다. 그러나 이에 속을 장군이 아니었다.

더디고 더딘 여름날 사람 보기 드물어  
교활한 오랑캐가 말마다 살아날 기회를 찾으라 하네  
이몸은 존왕양이의 대의를 짊어져  
당당히 죽음에 나가리니 감히 슬픔을 말하지 말라

제천에서 충주로 가는 사이 연도의 사람들이 모두 울면서 슬퍼하였다. 한 군수가 성찬을 차려 음식을 대접하자 “적의 음식이 어찌 목에 넘어가겠느냐”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였고 장군은 상처의 치료 까지도 거부하였다.

적군은 충주에서 이 장군을 심문하였는데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적을 나무랐다.

왜 적 : 당신도 한 사람의 위인임에 틀림이 없으나 지금은 붙들린 몸, 심문에 응하되 속임없이 진술하십시오.

이강년 : 나는 38세 때부터 의병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너희들과 싸워 왔는데 이제 51세다. 13년동안 시종 몸을 바쳐 나라위해 몸을 바친 내가 무엇을 바라서 속이겠는가 무엇이든지 물어 보아라.

왜 적 : 당신은 의병하는 것을 애국이라 하나 그것을 세계 대세를 잘못 본 것이다. 지금 생각은 어떠한가.

을미사변 이후 고종강제 양위에 이르기까지의 일제침략을 낱낱이 고발한 뒤 이강년이 말하기를

이강년 : 나는 의병장으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도리어 묻고 싶은 것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진의가 무엇인가. 대답하여 보라

왜 적 :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가.

이강년 : 내가 죽기를 결심하고 일해 왔거늘 어찌 처자를 돌볼 겨를이 있으며 또한 거처를 알수 있겠는가.

1908년 7월 8일 장군은 충주와 수원을 거쳐 서울 용산의 일본군사령부로 호송되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보도하였다.

일본병 수십명이 의병장 한 사람을 포박하여 인력거에 태워 입성하였는데 이 의병장의 용모는 흉안이었고 좌우를 살펴 보는 모습으로 보아 그 의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또한 장군을 태운 인력거가 서울에 도착하자 시내의 모든 가게는 문을 닫고 철시하였으며 관헌들은 망국의 비운을 개탄하면서 붓을 던졌다. 심지어 기녀들까지 술잔을 던지고 통곡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의병전쟁이 시작에 지나지 않았는데 겨레의 희망 이강년 장군이 잡혀서 돌아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강년 장군은 서울 용선의 일본군사령부에 일단 구금되었다가 평리원平理院(재판소)으로 이관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장군은 평리원에 있는 한국인 관리들을 둘러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네들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찌 왜적에게 붙어서 우리 종묘사직과 우리 동포를 해치는가. 내가 보고 싶은 자는 오로지 이등박문 한 놈 뿐이다. 너희 무리와 만나 할 말이 하나도 없다.

재판장인 박제준朴濟濬이 장군에게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묻자

너도 한국 사람이 아니더냐. 의병이 무엇인지 모르고 묻는가. 내가 너같은 자와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내가 거의한 것은 을사오적과 정미칠적을 먼저 참하고 다음에 왜적을 추멸하여 위로는 나라의 원수를 갚고 아래로는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려 한것인데 불행히 패전하고 말았다. 너희들 같이 더러운 놈들과는 말하기도 싫다.

고 했다. 박제준이 다시 “오적 칠적이 누구이냐”고 묻자 장군은

네가 정말 오적 칠적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바로 너같은 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고 규탄하였다. 이강년은 또 옥중에서 그의 애국충정을 글로 남기기를

어찌 이기고 지는 것을 따지리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를 말하리  
일편단심 나라를 생각하니  
나라의 은혜에 감읍할 뿐이다

당시의 의병장들은 한결같이 일제의 재판권 탈취를 불법으로 생각하고 그에 굴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다. 그래서 재판소를 알기를 일제와의 담판소談判所로 알았으며 시비를 가리는 장소로 여겼다. 그러나 일제와 그 앞잡이들은 재판소 알기를 의병장을 잡아 죽이는 사형집행장으로 알았다. 서대문형무소를 하필이면 홍제동으로 가는 길목에 세운 아유는 일제의 이같은 간악하고 잔인한 속마음에 있었던 것이다.

이강년 의병장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분이었기 때문에 임종에 앞서 종군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서(檄告八域同志)을 남겼다.

국운이 불행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자 원수의 오랑캐와 결탁하였다. 처음에는 임금님을 팔더니 나라를 팔았고 임금님을 욕 보이더니 국모를 시해하였다. 이제는 조정에 가득찬 역적들이 모두 왜적에게 붙어 종사를 뒤엎고 인륜을 없애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호! 저 극악한 원수들이 정부를 차지하고 앉아 전국과 무기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은 본시 도적이 하는 상습이라 분통할 뿐이나 저놈들이 이른바 교형법絞刑法이란 것을 만들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은 강탈하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누가 도둑인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나라에는 무고한 백성들이 날마다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다. 아! 어찌 차마 볼 수 있는 일인가.

이에 나 이강년은 양심이 격동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병신년(1896년)이래로 13년간 두 번 의기義旗를 들고 일어나 30 여회전에서 적추賊酋 백 여명을 참수하였다. 불행하게도 금년 6월 4일에 힘은 다 하고 갈 길은 막혀 탄환에 맞아 사로잡혔으며 오랫동안 옥중에서 옥보다가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 몸은 존화양이의 대의에 죽는 것이니 이제는 그 날이 다 되었다. 동지들에게 바라는 것은 적세가 성하다 하여 본래의 뜻을 어기지 마시고 더욱 큰 의리로 매진하시어 광복되는 날을 기다리시라.

나 이강년은 잡혀서 죽게 되어 통분한 마음 금할 수 없어 그 충정을 글로 적어 보이는 것이다. 사면을 바라 보며 재배하는 바이다. (『고결팔역동지畵訣 八域同志』 『雲岡倡義錄』 295쪽)

이같은 장군의 애뜻한 유언에 따라 중군장 김상태와 백남규 등 동지들은 장군이 순국한 뒤에도 계속 굴하지 않고 적과 싸웠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천만 민족을 향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강년은 지모智謀가 천박하여 국가대사를 성사成事하지 못하고 천고千古의 한을 남기고 돌아가게 되니 무안하기 짝이 없다. 바라옵건데 여러분은 충심을 다하여 국치를 설욕하고 수적讎敵을 섬멸하여 이 강토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장군은 큰 아들 李承宰와 종재 李康壽에게 이렇게 유언하였다.

너의 아버지는 평생토록 단충丹衷은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 무엇을 한탄하랴.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네 아우를 데리고 그날 옥문밖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내가 죽은 뒤 3일 안으로 마땅히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고향 산이 멀어 수레에 실어서 반장하기 어

려울 것이니 종가와 상의하여 서울의 효령대군 묘소 국내에 자리를 빌어 안장토록하라.

이 아버가 덕이 박하여 품은 뜻을 펴지 못하고 죽으니 너희 형제는 졸지에 아버를 잃으니 의지할 바가 없고 여관에서 한자의 배와 홀웃인들 마련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만 갇혀 있을 때 입던 옷가지로 선산에 묻으면 내가 마음으로 달게 여기는 바이니 유감스럽게 여기지 말아라.

이제 이 나라가 오랑캐의 소굴이 되고 말것인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부르나 하늘 뜻이 아득하기만 하니 통곡할 뿐이다. 내가 어찌 하랴. 이 아버가 가르침을 받은 것은 존양토복 녀자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삼아 천하의 강적이자 천천지원수와 총칼을 맞대어 싸운지 10여년에 요동과 하북, 호서와 관동을 왕래하며 싸웠으나 그 형세가 외로웠다. 그러나 군자는 말하기를 “양은 다할 이치가 없다”(陽無可盡之理) 하였고 고인은 말하기를 세월이 오래면 반드시 되돌아 오는 것이 상도(千秋必返理之常)라 하였다. 믿는 것은 단지 일맥 정리一脈正理일 뿐이다. (「訣長子承宰書 大略」 『대한매일신보』 1908.10. 15.)

장군은 또 종제 이군필에게도 유언을 남겼다.

나는 덕이 없어 뜻을 펴지 못하고 마침내 사로잡혀 죽음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속된 정리情理로 말하면 슬픈 일이나 내 마음에 있어서는 탄탄하여 마치 왔던 데로 돌아가는 것과도 같다(吾心坦坦然如歸). 인생백년에 누구나 한번 죽음이 있는 법이다. 이욕利慾을 다투다가 일생을 마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리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원수를 갚다가 창 끝에 죽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遺訣從弟君弼)

이강년 의병장은 1908년 양 10월 13일(음 9월 19일) 10시에 바로 이곳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에서 순국하였다. 순검 이춘식이 장군에게

“나가십시다”

고 말하자 장군은

“나더러 나가자는 것이냐”

고 물었다. 순검이

“그렇습니다”

고 대답하자 장군은

“오늘 내가 죽는 모양이구나 ”

하였다.

장군이 옥문을 나서는데 조금도 두려운 기색이 없었다. 사형집행장에 도착하자 일본 승려가 재를 올리려 하였다. 이를 보고 장군이 크게 꾸짖으며 물리쳤다.

전옥으로 있던 가미오도라노神尾虎之란 일본인이 말하기를

“대장께서 술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 잔 드릴까요”

이에 장군은 호통을 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설령 술을 좋아한다고 한들 어찌 네 술을 받아 마시겠는가. 망설이지 말고 빨리 나를 죽이라”

고 하면서 다시 말하기를

우리나라 이천만 동포가 장차 차례로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고 하였다.

이강년 의병장의 운구는 서울에서 제천까지 유림들의 손으로 체송되었다. 수많은 군중이 애도하는 가운데 제천읍 두학리에 안장되었고 유림들이 용의제를 맺어 제탑 15 두락으로 매년 춘추에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이강년 의병장은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중장을 받았다.

이처럼 이강년 의병장은 1908년 9월 23일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3일 오전 10시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셨다. 이강년 의병장의 나이 불과 51세. 그러나 1895년의 을미의병 이후 1908년까지 13년간에 걸쳐 나라를 위해 싸운 공적은 그 누구보다도 오래 사신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 6. 맺 는 말

이강년 의병장은 1895년의 을미의병에 참가하여 1907년의 정미의병에 이르기까지 13년간 투쟁하신 역전의 노장으로서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할 의병장의 한 분이시다. 그는 무과에 합격한 어엿한 군인이요 장군이였다. 따라서 그를 선생이라 부르기 보다 당연히 장군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강년 의병장은 또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의거하여 유인석 의진에

참가하여 그 아장亞將이 되었으나 유인석의 요동 망명에는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강년은 선생의 가르침에 따랐으나 독자적인 입장에서 을미의병을 수행하였고 또 정미의병에 종사하였다. 특히 정미의병 때에는 탁월한 전술과 지도력으로 의병전쟁을 확대 발전시켜 그 이름을 널리 알리었다.

우리는 근 20년에 걸친 한말 의병전쟁에 있어서 두 개의 커다란 흐름 즉 전략노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의암 유인석, 홍범도, 안중근과 같이 해외로 망명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려 한 해외항전파요 다른 하나는 끝까지 국내에 머물러 항일투쟁을 전개하려 한 국내항전파이다. 이강년의 스승인 유인석은 노령 연해주로 망명하여 그 곳에서 국내진공작전을 지도하였으며 안중근 의거 이후 13도창의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이강년을 비롯한 이인영, 허위 등 의병장, 그리고 최익현과 임병찬 등 일련의 국내항전파 의병들은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마다하고 끝까지 국내에서 의병전쟁을 빛냈다.

이처럼 의병전쟁에서의 국내항전파 의병장들은 국내항전이 전략전술상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항전을 계속하다가 적지 않은 분이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있었길래 70년 항일독립운동이 가능했던 것이며 그 정신이 살아서 즐기찬 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맥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강년 의병장의 순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강년 장군과 같은 국내항전파 의병장들이 택한 노선이 13도창의군의 서울탈환작전으로 결실되어 한말 의병전쟁의 빛나

는 전적이 길이 역사에 남게 되었던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이길 수 없는 것을 변연이 알면서도 기어이 싸우고야 말겠다는 의병정신 즉 성패불수成敗不須의 정신을 실천해 보였던 것이다.

# 한말 의병장 이인영과 서대문형무소

오영섭 연세대 연구교수

**제2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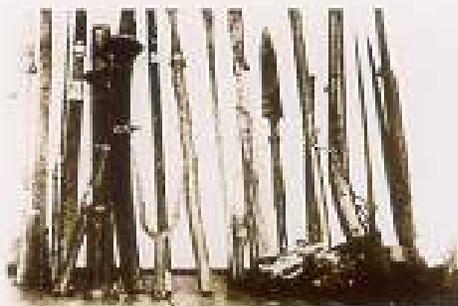
- I. 머리말
- II. 가문 배경 및 학문·성향
- III. 을미의병운동
- IV. 정미의병운동
  - 1. 관동창의군의 결성과 활동
  - 2. 13도창의대진소의 결성과 서울진공작전
  - 3. 거의 목적과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순국
- V. 맺음말



이인영(李麟榮) 의병장의 영정



이인영 의병장의 묘역



의병들이 사용한 무기



항일 의병들의 모습

# 한말 의병장 이인영과 서대문형무소

오영섭(연세대 연구교수)

## I. 머리말

1894년 일본군의 무단적인 경복궁 강제점령에서부터 1910년 대한제국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대한침략은 점차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우리 민족은 국가와 영토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각기 중앙과 지방에서 총궐기하여 일제에 대항하였다. 당시 일제의 대한침략을 막기 위한 국권회복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일본군과 친일세력을 타도하고자 무장 봉기한 의병전쟁은 투쟁노선면에서 가장 강렬한 반일운동이었다.

항일의병운동은 교육과 식산의 진흥을 통한 국권회복을 외친 애국계몽운동과 달리 반제투쟁의 선명성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이 운동은 1910년 국권상실 후 러시아·중국 등지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의 인적 자원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온갖 역경을 견뎌가며 장기간 치열하고도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정신적인 원천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한말 의병운동은 한국민족운동사

의 原型이요 한국독립운동사의 前史라 평할 수 있다.<sup>1)</sup>

한말 의병운동은 거족적인 항일민족운동이다. 이를테면 재야유림·전직관료·향리층·해산군인·지방군인·포군·농민·상인·보부상·동학군·활빈당·승군 등등 실로 다양한 세력들이 우후죽순처럼 봉기하여 대규모 연합의진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지위·신분·사상·지역·학통의 차이를 극복하고 친일파와 일본군을 물리치고 국가와 국왕을 구하겠다는 충군애국론에 따라 거의하였다. 이들 다양한 의병세력들은 명망있는 인사를 의병장에 추대하여 지도자로 삼고 장기간 치열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항일의병운동을 화려하게 수놓은 애국의병장은 양반과 평민을 포함하여 수십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다양한 의병세력들을 망라한 전국적인 의병장의 직함을 지녔던 이는 13道倡義大將 李麟榮과 13道義軍都總裁 柳麟錫 두사람 뿐이다. 이중 유인석에 대해서는 그의 사상과 활동 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sup>2)</sup> 일제의 거둬들인 회유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장식한 이인영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sup>3)</sup> 이에 본고에서는 극히 소략한 자료를 최대한 수합하여 이인영의 생애와 의병활동을 새롭게 조명해보려 한다.

- 
- 1) 金義煥, 『義兵抗爭史』, 博英社, 1974; 朴成壽, 『獨立運動史研究』, 創作과批評社, 1980; 조동걸, 『한말 의병전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윤병석, 『한말 의병장 열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 2)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國學資料院, 1999. [參考文獻] 참조.
  - 3) 이인영에 대한 연구로는 鄭達雄, 「韓末 義兵將 李麟榮 研究--十三道聯合義兵抗戰을 中心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3; 愼鏞廈, 「全國 '十三道倡義大陣所'의 聯合義兵運動」, 『韓國近代民族運動史研究』, 一潮閣, 1988. 그에 대한 略傳은 『獨立有功者功勳錄』, 國家報勳處, 1986. 845-850면; 金三雄, 「서대문감옥에서 순국한 의병장」, 『서대문형무소 근현대사』, 나남출판, 2000. 58-64면.

## Ⅱ. 가문 배경 및 학문·성향

李麟榮(1866.9.23-1909.9.21, 자는 公振, 호는 中南)은 경기도 驪州郡 북면 內龍里 橋項洞(일명 다리목)에서 경주이씨 菊堂公派의 李顯商과 김해 김씨의 4아들(麟榮·殷榮·起榮·龜榮)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여주군 북면 일대에 거주하며 관직과 문학을 전승한 영향력있는 양반가문이었다. 이인영의 고조부 甫彥은 嘉善大夫·호조판서·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管을, 증조부 章郁은 가선대부·공조참판·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을, 조부 漢龍은 通德郎을 지냈다. 부친 현상은 성품이 강개하고 공명·정직하여 당쟁을 좋아하지 않았고, 과거급제 후 선발을 기다릴 적에 親喪이 있자 즉각 귀향·분상하여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國事가 나날이 그르쳐지는 것을 보고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고 은거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에 열중하였고, 매번 국사를 생각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개결한 선비였다.<sup>4)</sup> 이러한 가문배경을 통하여 이인영은 부친의 지극한 호성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었으며, 집안의 유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기간 경학을 깊이 공부했을 것이다.

이인영은 나면서부터 남다른 자질(‘異質’)과 뛰어난 총명함(‘穎悟’)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우수한 바탕을 배경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서울 선비 鄭東鉉(鄭蘭央, ?-1877)에게 유학을 공부하였다. 수학시절에 선생의 敎督을 번거롭히지 않았을 정도로 학문에 열중한 이인영

4) 『慶州李氏菊堂公派基幹世譜』, 1978, 287-288면; 『慶州李氏大宗譜』 23, 菊堂公派編 乙之一, 1987, 346-347면. 또 그의 10대조 黈은 判官을, 8대조 尙培는 參奉을, 7대조 端紱는 司僕寺正을, 6대조 國新은 贈司僕寺正을 지냈다.

은 약관의 나이에 文辭가 숙성하고 孔孟書의 깊은 뜻에 통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일가의 학문을 이루어 원근 학자들의 존경을 받기에 이르렀다.<sup>5)</sup> 한편 서울의 일본헌병대본부에서 문초받을 때에 일본인 심문관이 그에게 “네가 觀相·天文·方位와 같은 분야를 특기로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거나, “다른 방면에 어떤 장기가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인영은 이른바 正學인 주자학을 제외한 여타 학문 분야에도 상당한 식견과 조예를 지니고 있었던 인물로 보여진다.<sup>6)</sup> 특히, 무반직을 거친 고조부·증조부의 영향으로 이인영도 아마 군사분야의 전략과 전술에 일정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다.

이인영은 성품이 매우 호탕한 편이었으며, 그러면서도 평민들이 그의 집 앞을 지나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엄격한 면도 많았다고 한다.<sup>7)</sup> 관직생활은 무임직인 大成殿 齋任을 지냈는데, 이것이 그가 평생 역임한 유일한 벼슬이었다.<sup>8)</sup> 그리고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의병활동 중에 부친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그 날로 창의대장의 막중한 대임을 벗어던지고 귀향길에 올랐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한 인물이었다. 나아가 당장 입증이 불가능하지만, 이인영은 을미의병운동 시에 청국으로부터 응원군을 불러오고 무기를 구입하느라 많은 재산을 소모하여 빈곤해진 관계로 한때 이강년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5)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28일: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韓國獨立運動史』 1, 國史編纂委員會, 1965, 719, 736면: 『慶州李氏菊堂公派基幹世譜』, 287면: 宋相燾, 「李麟榮」, 『騎驢隨筆』, 國史編纂委員會, 1971, 126면. 그는 복상중에 국내문제를 다룬 「道基記言」이라는 책자를 집필하였다.

6)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6면.

7) 鄭達雄, 「韓末 義兵將 李麟榮 研究」, 3면.

8) 「十三道倡義大將李麟榮逮捕始末」, 『韓國獨立運動史』 1, 718면.

한다.<sup>9)</sup> 하여튼 1908년 9월경에 그는 黃澗邑 金溪지역에 밭 2두락, 화전 3두락과 현금 1,500냥을 지니고 있었을 정도로 가난은 겨우 면할 만한 약간의 재산을 지니고 있었다.<sup>10)</sup>

### Ⅲ. 을미의병운동

일본의 경복궁점령(1894.6)으로 고종·민비가 유폐되고 친일개화파 정권이 등장하여 갑오경장을 단행하였다. 이에 재야유림들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군부를 육보인 친일개화파와 일본군을 축출하고자 의병봉기를 모색했다. 갑오경장 직후부터 추진된 그들의 거의 노력은 대다수 조선인들이 규탄해 마지않은 을미사변(1895.8)과 단발령(1895.11)을 거치면서 역사의 전면에서 분출되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양반유림들이 일반 민중들의 항일 열기를 수렴하여 의병을 일으켜 구국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柳麟錫·金河洛·李昭應·盧應圭·閔龍鎬 등 을미 연합의병장들을 비롯하여 단발령 후 봉기한 거의 모든 의병장들은 한결같이 민비시해를 복수하고 친일개화파와 일본군을 몰아내고 갑오경장 이전의 사회체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그들은 위정척사론에 입각하여 강력한 반일·반개화

9) 鄭達雄, 「韓末 義兵將 李麟榮 研究」, 4, 22, 25면. 이는 이인영이 1896년 3월경 제천 의병에 합류한 후 소모한 청국군 7명의 급료를 지급하느라 많은 재산을 탕진한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당시 포군과 민군들이 급료를 받은 사실과 그들이 받은 고액의 급료에 대해서는, 오영섭, 「을미 제천의병의 참여세력 분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40-43면.

10)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6면.

를 포방하였다.<sup>11)</sup>

단발령 후 경기남부·강원영서·충청좌도 일대에서 많은 재야유림들이 거의하였다. 이들은 이미 갑오경장 직후부터 거의를 모색하고 있다가 단발령을 전후하여 국왕 고종과 그 측근 인사들로부터 거의를 권고하는 고종의 密旨(衣帶詔·密勅·密符)를 받은 후에 거의하였다.<sup>12)</sup> 당시 재야의병장들이 밀지를 중요시한 것은, 국왕의 신물인 밀지가 그들에게 무단 거병의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유교적 충군에 국론을 철저히 신봉하는 재야신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며, 그리고 1-20명 정도의 군소 의병부대를 대규모 연합의병으로 결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sup>13)</sup> 그리하여 일제침략을 규탄하는 충군애국형·근왕주의형 및 비분강개형의 재야유림들이 국왕 고종과 그 주변인사들로부터 밀지를 받은 다음에 일어났고, 나아가 밀지를 받은 의병장들이 각지에 발송한 창의격문에 영향받아 거의한 인사들도 많았다.<sup>14)</sup> 을사조약 후 직접 밀지를 받고 크게 활약하게 되는 이인영·허위·이강년의 경우도 처음 밀지를 받은 의병장들이 각지에 전포한 창의격문을 받고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인영은 여주에서 창의하여 반개화·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sup>15)</sup>

- 
- 11)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제4장 제1절: 吳瑛燮, 「乙未義兵運動의 政治·社會的 背景」, 『國史館論叢』 65, 1995, 제3장 참조.
- 12) 鄭喬, 『大韓季年史』 上, 國史編纂委員會, 1957, 139면. “先是 各處義兵 皆受密勅而起 內閣則遣兵擊之 故至是下此詔”
- 13) 吳瑛燮, 『華西學派의 思想과 民族運動』, 218-221면.
- 14) 한달 의병운동과 밀지와 의 관계에 대해서는, 吳瑛燮,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의 性格--密旨를 中心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 15) 李正奎, 「從義錄」,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의병항쟁사자료집』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29면.

그의 의병활동은 1896년 2월 7일 영월에서 의병장에 오른 유인석이 각지에 격문을 보내 봉기를 촉구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sup>16)</sup> 그러나 여주에는 이미 중앙고관 심상훈의 일족인 沈相禧가 金河洛으로부터 '驪州大將'에 임명되어 500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sup>17)</sup> 이인영은 여주를 피하여 원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활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서 이인영은 제천의병의 소모사 李範稷 부대와 김하락의 막하인 광주의 金泰元부대의 측면과 배후를 방비하는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이인영의병은 심상희의병과 마찬가지로 일본군의 전선을 끊고 전신주를 절단하는 등의 반일활동을 벌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때 원주에서의 이인영의 의병활동은 '無大得失'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두드러진 성과를 올린 것은 아니었다.<sup>18)</sup>

1896년 3월 상순경 이인영은 충주성에서 철수하여 제천으로 후퇴한 유인석의 제천의병에 합류하였다.<sup>19)</sup> 그가 제천의병에 합류한 계기는 심상희의병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당시 의병의 세력이 약화되자 심상희는 후사를 도모하고자 개화파로부터 '背義表'(의병을 배격한다는 증서) 수백장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친지이자 이인영의 중군인 韓鎭國이 배의표의 수령을 거부하자 그를 살해하였다. 이에 이인영은 심상희를 대적치 못하여 피신하였고, 이로 인하여 통솔자가 없어진 이인영부대가 각지로 흩어졌다가 결국에는 그 일부가

16) 유인석의 을미의병운동에 대해서는, 오영섭, 「을미의병의 결성과정과 군사활동--제천의병을 중심으로--」, 『군사』 43, 2001 참조.

17) 金河洛, 「金河洛陣中日記」,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의병항쟁사자료집』 1, 590-591면.

18) 李昭應, 「斥和舉義事實大略」, 『昭義新編』 권8, 中央出版文化社, 1981, 486면.

19) 李正奎, 「從義錄」, 36면.

제천의병에 흡수됨에 따라 이인영부대가 해체되었던 것이다.<sup>20)</sup> 이때 이인영의 종사 李球采도 군사를 이끌고 합류하라는 심상희의 명령성 권유를 마다하고 양근의 용문산에 피신해 있다가 제천의진에 합류하였다.<sup>21)</sup>

해체기 단계에 접어든 제천의병내에서 이인영은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896년 5월 중순경 그는 우수한 무기와 정규의 군사훈련을 바탕으로 상당한 전투력을 보유한 呂國安 등 7인의 청국 군인을 소모해왔다. 이들은 왜적을 원수같이 여기는 배일의식이 투철한 군사들로서 제천의병이 친위대참령 張基濂의 개화관군과 제천성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22)</sup> 나아가 이인영은 申芝秀·元奎常 등 무용이 뛰어난 장수들과 함께 활동하며 嘉興의 일본군수비대를 공격했으나 무기열세와 군량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말았다.<sup>23)</sup>

제천성전투에서 패한 제천의병이 다시 집결하여 전열을 재정비할 때에 이인영은 別營將을 맡았다.<sup>24)</sup> 그러다가 後軍 召募將 別陣에 소속되어 신지수·이범직 등과 같이 의병소모활동을 폈으며, 관군의 추격에 밀린 제천의병이 보안에 머물 때에 유인석에게 大陣을 안창으로 옮기도록 권하는 동시에 자신은 신지수·이범직 등과 함께 砥平으로 향하였다.<sup>25)</sup> 그러다가 이인영은 제천의병이 강원도 旌善을 거쳐

20)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독립운동사자료집 : 의병항쟁사자료집』 1. 393-394면.

21)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397면.

22) 張忠植, 「山居漫錄」, 朴成壽·孫承喆 編, 『韓國獨立運動史資料集 : 義兵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83면;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453-454면; 元容正, 「毅菴柳先生西行大略」,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 의병항쟁사자료집』 1. 481-482면.

23)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459-460면.

24) 元容正, 「毅菴柳先生西行大略」, 483면.

25) 元容正, 「毅菴柳先生西行大略」, 504-505면.

복상할 때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정부의 해산권유에 응하여 귀가하였다. 이후 그는 부모와 처자를 거느리고 聞慶 산중에 은거하였다.<sup>26)</sup>

이상과 같이 이인영은 처음에는 원주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는 유인석의 제천의병에 합류하여 의병활동을 펼쳤다. 그의 의병활동은 정국변화·무기열세·군사훈련부족·지도부갈등·군수지원미흡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때의 의병활동은 그가 1907년 11월 전국적 의병조직인 13도창의대진소의 총대장에 오르는데 일정하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서울공격작전을 추진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sup>27)</sup>

## IV. 정미의병운동

### 1. 관동창의군의 결성과 활동

20세기에 들어 일제는 대한침략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일제는

26) 「李麟榮」, 『騎驢隨筆』, 126면: 「第二會 李麟榮問答調書」, 729면.

27) 을미의병운동 직후 이인영의 행적은 명확치 않다.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의병활동의 급선무가 무기구입임을 깨닫고 당시 서울에 袁世凱의 대리인인 청국인 朱鳳壽과 교섭하였다. 그리하여 무기구입을 목적으로 대농토를 매각하여 우선 삼백여명의 청국인을 용병 계약했으나 일부가 도중에 日軍의 공격을 받고 되돌아갔고, 일부는 橋谷里까지 來到하여 그 뒤 수습에 가산은 탕진되고 말았다”고 하며, 또 “을미의병운동 후 충북의 德山으로 가서 홍삼을 재배하여 무기구입의 재원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홍삼재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기구입 재원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체포될 위기에 처하였다. 이때 그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20명의 일본헌병과 한국인 보조원을 기습공격으로 물리치고 피신하였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된 고종은 그에게 특사를 내려 덕산의 홍삼사건을 묵인해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鄭達雄, 「韓末 義兵將 李麟榮 研究」, 22-23면.

1904년 1월 무력을 앞세워 韓日議定書를 성립시켜 한국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간섭을 합리화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대한제국을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이어 일제는 1907년 7월 정미7조약을 맺어 대한제국의 내정을 통할하는 次官政治를 시행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를 무력으로 해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침략행위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다시 의병을 일으키게 하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일제침략에 대항하여 국권회복을 갈구하는 의병들의 항일활동이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자극받아 향리 문경에 은거중이던 이인영도 암중으로 거의를 도모하고 있었다.<sup>28)</sup> 그러나 마침 부친이 병환 중이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sup>29)</sup> 그러던 차에 강원도 원주에서 봉기하여 여주·지평·원주 일대에서 활약 중이던<sup>30)</sup> 원주 출신의 의병장 李殷瓚과 서울 출신의 李球采(李九載)가 1907년 8월말경에 500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문경으로 이인영을 찾아왔다. 그들은 이인영과 시사를 논의하며 의병장에 오를 것을 간청했는데,<sup>31)</sup> 이때 이들은 이인

28) 일제측 기록에 의하면, 이인영은 이미 거의 직전에 상경하여 “二三의 有志”와 거의 문제를 협의한 일이 있으며, 서울에서 李紹榮과 의병에 관하여 협의한 일이 있었고, 유인석이 고종황제의 밀지를 받고 연해주로 망명하기 전에 의병에 관한 모든 일을 부탁했다고 한다. 「第二回·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29, 734, 741면.

29)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1-722면.

30) 『독립운동사자료집』 3, 511, 516, 666, 669, 706면. 이은찬·이구체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金度勳, 「韓末 李殷瓚의 聯合義兵運動과 倡義元帥部の 活動」, 『北岳史論』 5, 1998.

31)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1면: 「義兵總大將 李麟榮씨의 略史(續)」,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28일.

영에게 거의하여 원주에 元帥府를 수립할 것을 권하는 고종황제의 '密勅'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였다.<sup>32)</sup>

고종황제의 거의촉구 밀칙을 받은 이인영은 황제와 국가에 대한 충성문제와 부모에 대한 효도문제로 갈등하였다. 황제와 국가를 구출하기 위한 의병운동과 부친의 병환을 돌보기 위한 侍湯업무는 충과 효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인영에게 있어 우선 순위를 매기기 힘든 문제였기 때문이었다.<sup>33)</sup> 그때 부친은 그에게 "이때처럼 국가와 겨레가 너를 필요로 할 때가 또 있겠느냐"며 출전을 권유했고, 또 이은찬 등은 4일 동안 그곳에 머물며 "이러한 국가존망의 시기에 國家事急하고 父子恩輕하니 先公後私함이 마땅하다"며 간곡히 권하였다. 마침내 이인영은 9월 2일 원주에서 거의의 깃발을 들었다.<sup>34)</sup>

창의 직후에 이인영은 전국 8도에 비분강개에 가득찬 격문을 보내 의병을 소모하였다. 그의 소모에 응하여 다수의 군사들이 몰려들어 대규모 연합의병진이 형성되었다.<sup>35)</sup> 그러나 이인영의 의병부대는 대부분 유생들이었고, 또 군량이 없어서 남의 식량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인영은 의병들에게 民財의 약탈을 엄히 금하는 동시에 매국노의 곡식과 무기를 빼앗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원주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므로 대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楊州로 진격해야 한다고 하였다.<sup>36)</sup>

32) 「李麟榮」·「李殷瓚」, 『騎驢隨筆』, 127-128면. "且有密勅 累日懇勸不已". "丁未變後 上密勅麟榮 設元帥府于原州".

33) 피체 후 심문받을 적에 그는 "아버이 사망 후 복상을 하지 않으면 불효에 해당하는 다. 아버지에게 불효한 자는 금수와 같다. 금수는 폐하의 신일 수 없다"거나, "국가의 大事와 一家의 內事는 깊이 연구하면 동일에 귀착한다"며 충성심과 효성심을 동일하게 인식하였다. 「第一回 李麟榮密問調書」, 724면.

34)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28일: 「第一回 李麟榮密問調書」, 721면.

35)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28일.

의병부대의 내부를 단속한 이인영은 관동지역의 의병부대를 통일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관동창의대장에 이인영, 총독장에 이구채, 중군장에 이은찬, 좌군장에 方仁寬, 우군장에 權重熙, 유격장에 金海鎭, 좌선봉장에 鄭鳳俊, 우선봉장에 金炳和, 후군장에 蔡相俊, 運糧官에 玄履甫, 재무장에 申昌先·閔春元, 좌총독장에 金顯福, 우총독장에 李貴成, 鎭衛隊司令部에 閔肯鎬 등이 임명되었다.<sup>37)</sup> 이로써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이 결성되었다.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은 원주에서 지평으로 이동하였다. 관동창의군은 지평에서 2개월간 머물며 일본군과 수차례의 전투를 벌이는 동시에 서울진격을 위한 군사력 증대에 나섰다. 그리하여 16陣의 병력을 합하여 약 수천명의 의병이 이인영의 휘하에 모여들게 되었다.<sup>38)</sup> 이러한 의병세력을 거느린 이인영은 국왕의 밀지를 받은 창의대장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함으로써 13도창의대장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우선, 이인영은 서울진공작전을 통하여 친일매국노와 일본군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연합부대를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07년 10월 西北 양도를 제외한 전국 각 지역의 의병장들에게 통합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서울로 진격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호응하는 의병부대들은 경기도 楊州에 모일 것을 촉구하였다.

36) 「李麟榮」, 『騎驢隨筆』, 127면: 「第一回·第二回·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23, 728, 740-741면.

37)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國史編纂委員會, 1968, 157면.

38) 「十三道倡義大將李麟榮逮捕始末」, 719면.

용병의 요체는 그 고독을 피하고 일치단결하는데 있는 것인즉, 각 도의 의병을 통일하여 뜻을 무너뜨리는 형세를 타서 近畿로 쳐들어가면 온 천하에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며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리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다음으로 이인영은 10월경 서울사람 金世榮을 상경시켜 일본의 대한침략과 '棄信背義'를 성토했다는 격문을 각국 공사관과 일본 統監에게 전하게 하였다. 이때 김세영은 이인영이 집필한 원고와 의병대장의 인장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sup>40)</sup> 그 격문의 요지는 일본의 불의를 성토했고 한국의 어려운 처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병은 순수한 愛國血團이므로 열강도 이를 국제공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해주어야 하며, 또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나라들이 의병을 同聲으로 응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41)</sup> 이것은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해 의병의 대일항전이 바로 독립전쟁임을 국제적으로 선포한 의미있는 선언이었다. 나아가 이인영은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격문」(Manifesto to All Koreans in All Parts of the World)을 해외에 보내기도 하였다.<sup>42)</sup>

동포여! 우리들은 단결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우리의 독립을 회복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전세계에 대하여 야만적인 일본인들의 심대한 부정

39)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29일. “用兵之要 避其孤獨 而在於一致團結 則統一各道之兵 乘潰堤之勢 近畿犯入 舉天下不能爲我寶物 可見有利於韓國之解決矣”.

40)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4-735면.

41)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30일. 鄭達雄, 「韓末 義兵將 李麟榮研究」, 32-33면.

42)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4면.

과 난폭함을 호소해야만 한다. 그들은 교활하고도 잔인하며, 진보와 인도의 적이다. 우리들은 모든 일본인과 그들의 앞잡이들과 동맹자들과 군대들을 처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sup>43)</sup>

이러한 일련의 선전활동을 통하여 이인영은 국내외의 외국인들과 동포들에게 의병의 정당성과 일제의 야만성을 천하에 밝히고 나아가 한국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시킴으로써 연합의병의 서울진공작전이 성사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sup>44)</sup>

마지막으로 관동창의군과 각처 의병은 양주로 이동하여 13도창의

43) 『日本外交文書』, 제41권 제1책, #856. "Compatriot. We must united and to consecrate to our land and restore our independence. We must appeal to the whole about grievous wrongs and outrages of barbarous Japanese. They are cunning and cruel and are enemies of progress and humanity. We must all do our best to kill all Japanese, their spies and soldiers."

44) 관동창의군이 각지에 발송·전포한 문건 중 全文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근위대 근사들의 의병참여를 권하는 아래의 격문이 유일하다. "警告我大韓近衛隊出駐所하노라. 嗚呼痛矣라. 夫我環土之民이 莫非我皇上之赤子 則人孰無圖報之心乎아. 噫라. 國運이 罔極하야 恢變層疊은 不可枚舉 而至若今年所遭論之 則廢我皇上하고 解我軍隊하야 使我五百年宗社와 三千疆土로 坐失於사麼倭奴 則君等이 不勝忠憤하야 今夏鍾街上之砲聲은 天地生色이요 西小門之橫尸는 日月無光이라. 夫我人民이 熟不感泣而稱歎也리요. 鄙等不度力量하고 以內外相應하야 將隨僉後之計로 舉義關東에 一呼百應하야 殆至千萬이라. 何幸 近者에 皇天이 默祐하고 倭酋가 失計하야 使我軍隊로 出駐各處하야 討我義旅云 則是豈放虎自衛者乎아. 意謂倒戈土賊하야 附我義陣터니 入境이 有日에 尙無獻功之舉 鄙等이 間或換腸而然歟아 果無紹介而然歟아. 不卽歸正하고 君如是相持타가 早晚對陣之日에 義旅之砲는 射我軍隊하고 軍隊之砲는 射我義旅하야 弟兄이 相關하고 骨肉이 相爭하야 徒殺我同胞乃已 則後有復我國權이며 救我生靈乎아. 難免上天之誅며 其奈列國之恥耶아. 同國同胞相戰之說은 波蘭埃及亡國之事에도 所未聞所未見之事也라. 以堂堂大韓厚蒙國恩之軍隊로 無若一進輩之賣國附賊이 어다. 嗟我同胞軍隊여. 今番出駐討義가 決不出我皇上之聖旨요. 且果非我軍隊之本意 則不必之思하고 勇斷大志하야 殄滅倭奴하야 斬首級而奪器械하고 附我義陣 則此乃不世之功이요 自有千金之賞이건과 回心協力하야 掃滅倭寇하야 還我疆土하고 復我皇位하야 與我同胞로 共樂太平하야 生爲韓民하고 死爲韓鬼 則遺芳百世어나와 若不然則大舉長驅之日에 難免玉石俱焚之歎矣리니 早決進退하야 毋至後悔이되 可否間卽爲回示하야 以濟大事之地 幸甚. 光武 十一年 十一月 十五日"

대진소를 구성하기 전에 일본군과 수 십회의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이중 규모가 큰 전투는 1907년 11월 7·8일의 三山전투와 麻田전투였다. 먼저 삼산전투를 살펴보면, 관동창의군 1천여명이 원주읍에서 7-8리 정도 떨어진 지평군 上東面 蟾實洞·三山里·舟川里·山梅實洞에 유진하였다.<sup>45)</sup> 의병들은 군서기를 체포하여 군용금을 징수하는 한편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서울로 통하는 松用洞·伊雲里·板館垆洞 등 요지에 각각 2-30명 정도의 보초를 세웠다.<sup>46)</sup> 처음에 1천명이던 의병의 숫자는 각처 의병이 모임에 따라 곧이어 2천으로 늘어났다. 의병들은 원주의 일본군수비대와 서울에서 출동한 일본군 2개중대와 이틀간에 걸쳐 치열한 혈전을 벌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山砲隊까지 동원할 정도로 화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의병들은 2-3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아쉽게 패하였다.<sup>47)</sup>

다음 마전전투를 살펴보면, 11월 8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연합의병 1천여명이 마전읍 일대에 집결하여 헌병분견소를 포위하고 일본군수비대를 공격할 기세였다. 이에 일본군수비대는 인근 지역의 수비대에 급히 원병을 청하기도 하였다. 연합의병은 마전읍의 일본수비대와 급히 증파된 금화수비대 및 철원수비대와 전투를 벌였으나 2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하였다.<sup>48)</sup>

이상의 삼산전투와 마전전투는 의병측이 총 5천병력을 일본군이 5-6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를 벌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45)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93면.

46)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104. 108면.

47)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104-105. 108면.

48)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8. 109-110면.

한 대격돌이었다.<sup>49)</sup> 비록 두드러진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이상의 전투는 관동창의군과 각지 의병들이 서울진공작전을 위해 사전에 정찰 및 공작활동을 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전투를 치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 2. 13도창의대진소의 결성과 서울진공작전

이인영의 관동창의군은 힘겨운 전투를 치르면서 양주로 진출했다. 원주에서 봉기한 관동창의군은 지평·홍천·춘천·양구 등지를 통과하여 1907년 12월 초순경에 양주에 도착하였다. 이중 의병의 정예부대 4백여명과 일본군 6-70명이 맞붙은 춘천과 양구 사이에서의 두차례 전투는 격전이었다.<sup>50)</sup> 양주에 도착한 관동창의군은 서울 동부 및 강원 영서 일대에서 활약중인 許薦부대·李康倅·閔肯鎬부대를 비롯한 다수의 의병부대와 합류하여 13도창의대진소를 구성하게 되었다. 더욱이 양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허위부대는 이인영부대와, 이인영부대는 이강년부대와 연통하여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sup>51)</sup> 양주 집결 후에 이들 부대는 자연스럽게 연합의진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인영의 격문에 호응하여 양주에 집결한 의병부대는 총 48진에 대략 1만명에 달하였다.<sup>52)</sup>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도에서 민공호부대가 2천명, 이인영부대가 1천명을 비롯하여 강원도 의병이 약 6천명 정도였고, 경기도의 허위부대가 약 2천명, 충청도의 이강년부대가

49)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0, 129면.

50)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40면.

51) 『大韓每日申報』, 1908년 11월 28일.

52) 「十三道倡義大將李麟榮逮捕始末」, 719면.

약 500명, 평안도의 方仁寬부대가 80명, 함경도의 鄭鳳俊부대가 80명, 전라도의 문태수부대가 100명 등이었다.<sup>53)</sup> 그런데 이들 개별 의병부대들이 서울진공작전을 위해 연합부대를 결성한 것은 의병활동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합의병부대는 느슨한 지휘체계와 복잡한 명령체계 및 박약한 기동성으로 인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 1만명의 연합의병 가운데 해산군인은 민공호부대의 800명, 이인영부대의 80명, 강화도·청주 등지의 해산병 등 무려 3천명에 달했지만,<sup>54)</sup> 화승총을 지닌 구식군인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洋銃을 지닌 진위대의 해산병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양주에 집결한 연합부대의 규모나 화력은 일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에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

양주에 집결한 의병장들은 전체 통솔자가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하에 상호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13도창의대진소를 성립시키고 이인영을 13도창의대장으로 추대하였다.<sup>55)</sup> 이인영이 13도창의대장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이은찬을 통하여 고종의 밀지를 받은 의병장으로서 각처 의병을 양주로 집결시킨 명망높은 인물이라는 점과 을미의병운동 때 다른 사람보다 공평하게 행동하여 타인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sup>56)</sup>

이 외에 이인영이 13도창의대장에 등단하는데 영향을 미친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 이인영은 양주에 모인 장수 가운데 비교적 연소자

53)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朴殷植全書』上,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5, 466면.

54)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9-741면.

55)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7면.

56)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8면.

였다. 그는 허위보다 11세 아래이며, 이강년보다 8세 아래였다. 또 관력면에서 허위는 칙임관으로서 평리원 수반판사·비서원 승 등직을 역임한 고관출신이었던 반면,<sup>57)</sup> 이인영은 무임직의 大成殿 齋任을 거쳤을 뿐이었다. 게다가 민공호부대와 허위부대는 이인영부대보다 군사수가 훨씬 많았으며,<sup>58)</sup> 을미의병운동 당시 같이 활동한 이강년은 제천의병의 의병장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장수라는 평판을 들었던 인물이었다.<sup>59)</sup> 게다가 양주집결시 이인영은 허위에게 日貨 백원을 받았을 정도로 군자금의 부족했음은 물론 13도창의대장에 오른 후에도 군량관 金炳華가 재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금전출납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sup>60)</sup> 더욱이 중군장 이은찬은 연합의병의 서울진공작전을 총기획하였고 이인영의병의 안살림을 도맡아 관리했기 때문에 이인영에 못지않은 실권을 지닌 인물이었다.<sup>61)</sup> 이상을 감안하면 이인영이 13도창의대장에 오르기 위해서는 허위·이강년·민공호·이은찬 등의 권위와 실권을 능가하는 어떠한 정치적·사회적 요인 내지 배경이 있어야만 했다.

민공호는 분명치 않지만, 이인영·허위·이강년·이은찬 등은 모두 을사조약 후 고종황제로부터 혹은 고종황제의 측근으로부터 밀지를 받은 다음에 거의하였다. 그러다가 이들이 1907년 12월 양주에 모였을 때 중앙에서 다시 고종황제 명의의 哀痛詔가 내려왔다. 이때

57)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國譯) 許蔭全集』, 亞細亞文化社, 1985, 288-289면.

58)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8면.

59)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421면.

60)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9면.

61)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467-468면. 한말 의병운동 당시 中軍將의 막중한 역할에 대해서는, 元容正, 「毅菴柳先生西行大略」, 486-487면. 또 糟谷憲一, 「初期義兵運動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4, 1977.

여러 의병장 가운데 이인영이 참봉 陳明燮을 통하여 고종황제의 밀지를 받았다.<sup>62)</sup> 그후 이인영은 金明成을 허위에게 보내 자신에게 밀지가 내려왔으므로 전국에 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sup>63)</sup> 당시 이인영을 후원한 중앙세력이 고종황제인지 아니면 고종황제의 측근 인사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하여튼 밀지는 고종황제의 권위를 일시 위임하는 성격을 지닌 고종황제의 신물과 같은 문건이었기 때문에 이인영은 밀지를 통하여 고종황제의 신임을 확인한 연후에 비로소 13도창의대장으로서의 자격을 확고히 갖출 수 있었을 것이다.<sup>64)</sup>

전국적 연합의병부대가 성립되자 이인영은 13도창의대진소의 직임을 분장하였다. 그리하여 13도창의대장 李麟榮, 전라창의대장 文泰洙, 호서창의대장 李康季, 교남창의대장 申珩石, 진동창의대장 許蔦(亞將 朴正彬), 관동창의대장 閔肯鎬, 관서창의대장 方仁寬, 관북창의대장 鄭鳳俊 등이었다.<sup>65)</sup> 따라서 이들 연합의병은 일견해서 한반도의 남북을 아우르는 전국적 대표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의 의병들이 주축을 이룬 것이었다. 게다가 아직 상경하지도 못한 문태수·신돌석 의병장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 13도창의대진소의 지도부 조직은 변화할 여지를 안고 있었다.

13도창의대진소의 지도부 조직은 1개월 후인 1908년 1월경에 약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서울진공작전에 참가하지 못할 부대

62)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4-726면.

63)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6면.

64) 吳瑛燮, 「韓末 義兵運動의 勤王의 性格」, 72-82면.

65)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38면.

들이 나타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심삼도창의 대장에는 이인영, 군사장 허위, 관동창의대장 민공호, 호서창의대장 이강년, 교남창의대장 박정빈, 진동창의대장 權重熙, 관서창의대장 방인관, 관북창의대장 정봉준 등이었다.<sup>66)</sup> 이러한 개편의 특징은 아직도 영호남에서 활동중인 문태수·신돌석을 배제하고 허위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었다. 이렇게 전국연합 의병부대의 조직개편을 마친 이인영은 최후로 서울점령을 위한 진격명령을 내렸다.

이인영의 서울탈환작전의 기본구상은 병력을 이끌고 동대문밖 30리 지점에 집결하여 대오를 정비한 다음 정월을 기하여 서울에 입성하는 것이었다. 당시 이인영의 서울진공작전의 목적은 일제 통감부와 교섭하여 城下의 盟을 맺고 종래의 소위 신협약 등을 파기하여 대대적 활동을 벌이는 한편,<sup>67)</sup> 馬關條約 대로 한국의 독립과 황실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었다.<sup>68)</sup> 이러한 복안에 따라 이인영은 먼저 군사장 허위로 하여금 300명의 선봉대를 이끌고 진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허위의 선봉대는 미처 본대가 도착하기도 전인 1908년 1월 15일경 잠복중인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고 장시간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후퇴하기에 이르렀다.<sup>69)</sup> 허위의 선봉대가 패퇴한 것은 무기의 열세와 전군이 약속한 기일내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3일후에 이인영이 약 2천병력을 거느리고 동대문밖 30리 지점까

66) 연합의병부대의 조직에 대해서는 慎鏞廈, 『全國 '十三道倡義大陣所의 聯合義兵活動』, 38-44면.

67)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30일.

68)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1면.

69)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21일: 『旺山許蔭先生舉義事實大略』, 『독립운동사자료집』 2, 242면.

지 당도하여 후군의 도착을 기다렸으나<sup>70)</sup> 선봉대의 패배로 의병측의 사기는 이미 상당히 꺾인 상태였다. 게다가 1907년 10월부터 1908년 2월까지 관동창의군과 13도창의대진은 일본군과 수십회의 격전을 벌여서 탄약재고량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sup>71)</sup> 이인영의 서울진공작전은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

내우외환이 중첩한 어려운 상황속에서 1월 28일 이인영은 부친의 부음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이인영은 “나라에 불충함이 부모에 불효함이 되고 부모에게 불효함이 나라에게 불충함이 된다. 그 道는 하나며 둘이 아닌 것인즉 나는 國風을 지켜 3년상을 치루어 효도를 마친 후 재기하겠다”며 후사를 군사장 허위에게 맡기고 문경의 본가로 내려갔다.<sup>72)</sup> 이인영이 귀향하면서 ‘義’를 중시하라는 통문을 각진에 배부하자 모든 의병부대는 서울진공작전을 중지하였다.<sup>73)</sup> 이로써 전국 의병들이 연합하여 일시에 서울을 탈환하려던 서울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문경의 본가로 돌아온 이인영은 부친상을 마치고 3년상을 치른 연후에 다시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였다.<sup>74)</sup> 그러나 일제 헌병과 경찰은 13도창의대진의 총대장인 이인영을 체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다. 이때 대선배인 유인석이 이인영에게 외국으로 피신할 것을 권했으나

70)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1면. 『騎驢隨筆』에는 이인영이 몸소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대문밖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71) 의병측의 탄약고갈에 대해서는, F. A. 맥켄지 저, 신복룡 옮김, 『대한제국의 비극』, 평민사, 1985, 186, 189면.

72) 「李麟榮」, 『騎驢隨筆』, 127면.

73)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3면; 「義兵總大將 李麟榮氏의 略史(續)」, 1909년 7월 31일.

74)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7면. 이때 일본심문관은 이인영이 복상 중에 군수금을 모집하려 다녔고 음으로 의병을 지휘했다고 하였다.

그는 거절하였다. 이인영은 일본군의 수색이 점점 심해지자 부득이 자신의 이름을 李時榮으로 개명하고 두문불출하였다.<sup>75)</sup> 그러나 일제의 수색이 더욱 심해지자 그는 노모와 슬하의 두 아들을 데리고 상주군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충북 황간군 金溪洞에 이거하였다.<sup>76)</sup> 그러나 그는 끝내 부친의 3년상을 치르지 못하고 1909년 6월 7일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 3. 거의 목적과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순국

문경에서 체포된 이인영은 천안헌병분대 대전분견소에서 倉富和三郎 헌병중위에게 일차 심문을 받은 후 서울로 압송되어 일본육군 헌병대위 村井因憲의 주재하에 3회에 걸쳐 취조를 받았다. 이때 그는 자신의 주된 창의목적은 깨닫는 일본인들에게 “馬關條約 대로 한국의 독립과 皇室의 안전을 꾀하고”,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독립을 공고히한 연후에 奸臣을 살육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sup>77)</sup> 또 그는 일본측이 거듭 반복해서 거의목적을 추궁하자 “일러전쟁과 군대해산으로 한국의 독립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거의하였다”거나, “한국의 奸臣을 죽이고 독립을 꾀하기 위해서 거의하였다”고 대꾸하였다.<sup>78)</sup> 나아가 이인영은 의병운동의 배후에 고종황제가 있다는 확고한 판단하에 그와 고종황제와의 관련성을 추궁하는 일본측에 대해 “본래 타인의 권유는 없었으며 망국의 길을 당하여

75)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28면.

76) 「李麟榮」, 『騎驢隨筆』, 128면.

77) 「第二回 李麟榮問答調書」, 731면.

78) 「第一回 李麟榮問答調書」, 720, 723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군사를 모아 서울에 있는 일본 統監을 쳐부수고 외인을 이 땅에서 몰아내며 五賊七奸<sup>79)</sup>의 매국노를 처형할 목적이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상의 공술로 미루어 이인영은 반일의식·근왕의식·독립정신에 입각하여 일본군과 친일파를 물리치고 황실을 공고히하고 한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거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짚어본 이인영의 거의 목적은 일제가 그의 취조문답을 요약한 「거병 主旨 및 목적」이라는 구절과 1908년 3월 채포된 이인영의 참모장 金堧이 취조 중에 공술한 기록에 여실하게 나타나 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종국에서 馬關條約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맹약하고 이를 세계에 聲明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를 해산하고 우리 황제로 하여금 강제 양위케 하는 등 특히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였다. 이에 의병을 일으켜 그들을 이끌고 상경함으로써 統監과 詰談하려 하였다. 만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비록 힘이 미치지 않더라도 결단코 먼저 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나라를 망치려는 不忠不義의 역신 宋秉峻·李完用·朴齊純·任善準·權重顯·李址鎔 등을 살육하고, 우리가 신용하는 인물과 가능하면 나도 그 일원으로써 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을 구축하여 우리 나라의 독립을 보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sup>80)</sup>

同人은 강개비분한 태도를 보이며 현금의 時態인즉 한국은 오직 名義뿐으로 그 국가의 실권은 모두 일본에게 탈취당하기에 이른 것은 필경 五賊七奸의 處爲이라 하고 憤懣하면서 우리 의병은 彼等の 일파를 섬멸하고 국권을 회복한 후 의병중에서 인물을 선임하여서 정부를 조직할 企望이라고만 放言하여 自若

79) 이인영이 「問答調書」에서 누차 언급한 이른바 乙巳五賊과 丁未七奸은 망국조약의 체결을 주도한 이들로서 을사오적은 朴齊純·李址鎔·李完用·權重顯·李根澤 등이며, 정미칠간은 李完用·宋秉峻·李秉武·任善準·李載崑·高永禧·趙重應 등을 말한다.

80) 金正明 編, 『韓國獨立運動 I : 民族主義運動篇』, 東京: 原書房, 1967, 37-38면.

하였다.<sup>81)</sup>

이상과 같은 이인영의 거의 목적을 정리하면, 한국의 국권을 침탈한 일제 통감부를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한일협약의 체결을 주도한 오적칠간의 매국노를 처단하고, 망국적인 을사늑약과 정미조약을 파기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의병 중에서 신망이 높은 인물을 선임하여 신정부를 조직함으로써 조선의 자주독립과 고종황제의 안녕을 천하에 선양하려는 것이었다.

서울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을 적에 이인영은 강개한 언사를 유지하며 조금도 굴복하는 기색이 없었고, 나아가 일본인들이 신의가 없음을 들어 그들을 준열하게 꾸짖어 마지않았다. 이에 감명받은 일본인들이 이인영을 義士라고 생각하여 아주 각별히 예우하였다.<sup>82)</sup> 심문조서 작성이 끝날 무렵 최후진술을 원하는 일본인들에게 이인영은 “나는 국가를 위하여 창의하여 忠君愛國의 정신은 물론 나의 誠意로 이를 받기시킨 것이다. 世事는 뜻대로 되지 않고 또 親喪을 당하여 얼굴도 拜見치 못하고 忠孝 공히 죄인으로 天地에 몸들 바가 없게 되었다. 이 이상은 죽을 수 밖에 없다. 처분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하였다. 요컨대 이인영은 끝까지 13도창의대장으로서의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굳센 독립정신과 충효정신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sup>83)</sup>

이인영은 1909년 8월 13일 경성 지방 재판소에서 “내란 造意 및

81)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19, 129면.

82) 「李麟榮」, 『騎驢隨筆』, 129면; 「義兵總大將 李麟榮氏 略史(續)」, 1909년 8월 1일.

83) 「第三回 李麟榮問答調書」, 742면.

지휘범”의 혐의로 교살형을 언도받고 9월 21일 경성감옥(현 서대문형무소)의 교수대에서 43세의 나이로 의로운 생애를 마쳤다. 대한민국정부에서는 1962년 3월 1일 그에게 건국공로 複章後章을 추서하였다. 죽을 때에 그는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한일간 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동양평화론이 담긴 의미심장한 한시를 남겼다.

밝고 밝은 해와 달이 中洲에 걸렸는데  
은 세상의 바람과 물결이 넘쳐 흘러드네  
도요새와 썩조개는 어찌 그리 서로 다투는가  
西洲가 힘도 안들이고 그 들을 잡아가겠네<sup>84)</sup>

이인영이 서거한 후 그의 가족은 일제의 혹독한 감시와 탄압을 받았다. 이에 그의 부인은 일제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아들들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하였다. 한편 이인영의 동생 李殷榮(1868-1921)은 형을 도와 13도창의대진에서 활동했으며 1909년 6월경까지 경기·강원도 일대에서 의병항전을 계속하였다. 1910년 이후에 의병계열의 비밀결사체인 民團組合의 충청도지부장으로 격문 살포와 군자금모집 활동을 벌였고, 1913년 9월에 임병찬 등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조직한 朝鮮獨立義軍府에 참여하여 일본의 내각총리 대신 및 조선총독 등에게 조선독립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외국공관에 격문을 전달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1914년 4월경 피체되었다.<sup>85)</sup>

84) 「義兵總大將 李麟榮氏 略史(續)」, 1909년 8월 1일. “分明日月懸中州 四海風潮濫○流 蚌鷓緣何相持久 西洲應無漁人收”.

85) 『高等警察要史』, 慶尙北道警察部, 1934, 178, 259, 260면; 『日帝侵略下 韓國三十六年史』 2, 國史編纂委員會, 300면.

## IV. 맺음말

이인영은 최초의 전국적인 연합의병조직인 13도창의대진소의 창의 대장을 지낸 상징적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생애와 양차의 의병활동은 한말 의병운동사상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이 그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여진다. 아마 그러한 첫 번째 이유로는 13도창의대진이 서울진공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이인영이 國事를 저버리고 家事를 위하여 의병대장직을 허위에게 일임하고 하향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다른 의병자료와 달리 그의 「問答調書」에 유달리 많이 나오는 고종황제의 밀지문제와 고종 측근 인사들과 이인영과의 내용문제가 의병운동의 순수성·자발성 및 이념성을 배타적으로 강조해온 한국학계의 국수주의적(민족주의적) 내지 민중주의적 의병연구 경향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이인영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뒤늦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1907년 전후 유림계열의 대표적 의병장인 유인석·최익현·이석용 등도 여전히 衛國보다는 衛道를 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감안하면 부친상을 이유로 하향한 이인영의 행위를 현재적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듯하다. 나아가 고종황제의 밀지문제나 이인영과 고종측근들과의 내용문제는 경기일원의 의병운동이 전국화·조직화·연합화·장기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한말 의병운동의 특질을 해명하는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

컨대 본고는 이인영의 전후기 의병활동을 일차사료에 근거하여 재구성하는 한편 상기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필자 나름의 愚見을 첨가한 논문인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인영의 생애와 활동 및 그 의의를 시기별·요점별로 간략하게 간추려 기록한 일본인들의 재판판결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피고는 文班 출신으로서 특히 排日사상이 심하여 지금으로부터 13년전 당시의 정부(개화파)에 반항하여 내란 준비를 한 일이 있는 자로 항상 統監정치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있던 자이다. 이어서 前 황제폐하(고종)가 양위하자 要路의 대신을 지목하기를 매국노라 하여 이들을 살륙하고 새로이 자기가 믿는 자로 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은 물론 기타 외국인을 국외로 구축하는 등 당시의 政事를 변경할 목적으로 난을 일으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李球采·李殷瓚 등과 공모하여 그 당시의 거주지인 聞慶에서 이들이 이끌고 온 동지들 및 原州에서 해산된 병정 5백명으로 조직된 3진의 대장이 되어서 前記한 취지로 격문을 전국내에 배포하는 한편, 명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통감 및 각국 영사들에 대하여 “대일본제국이 馬關條約에 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호소하였다. 진군하여 砥平에 이르러 그의 도당이 8천이 되고 이어서 楊州로 가서 동지인 許薦·李康季의 무리와 합하여 그 수호가 1만에 달하여 허위를 군사로 삼고 李康季·李泰榮·李殷瓚·李俊秀·延基羽 등을 각 부장으로 삼아 스스로 총지휘자가 되었다. 도당 각자에게서 병기와 군량을 출연시키고 해산병으로서 부하에 투입한 자로 하여금 탄약을 만들게 하여 일거에 京城으로 들어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수비대, 기타와 충돌하였다. 거사 이래로 약 4개월 동안 강원도·경기도의 각지에서 대소 약 38회의 전투를 거듭하였으나, 궁교롭게도 그의 부친이 서거했다는 보도에 접하여 초상을 치르기 위해 사임하고 귀향하여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거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 체포된 자이다.<sup>86)</sup>

86)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 의병항쟁재판기록』, 1974, 372-373면.

**여 백**

# 許蔭의 義兵鬪爭과 서대문형무소

李炫熙 성신여대교수 · 서울시 문화재위원

**제3주제**

1. 序 論
2. 許蔭의 成長과 學問
3. 前期 義兵鬪爭과 改革案
4. 檄文의 公布와 抗日鬪爭
5. 後期 義兵鬪爭과 13道倡義軍
6. 許蔭의 殉國과 서대문형무소
7. 結 論



허 위(許 蔚) 의병장의 영정



항일 의병들의 모습



왕산 허위선생 순국기념비  
(王山許蔚先生殉國紀念碑)



허위선생유해비(許蔚先生遺骸碑)

# 許薦의 義兵鬪爭과 서대문형무소

李炫熙(성신여대 교수, 한국근·현대사)

## 1. 序 論

한말의 의병투쟁은 1895년 乙未事變을 계기로 한 을미의병(전기)으로 시작되어 1905년 乙巳의병으로 거쳐 1907년 丁未의병(후기)에 이르러 절정을 맞게 되며 1910년대 중반까지 연결된다. 당시 의병투쟁은 항일의식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세력면에 있어서 을미의병 시기에는 유생, 농민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었던데 비해 을사의병 이후에는 유생, 농민, 시민, 군인 등 전 민족적 세력이 동원이 되었다. 또 의병투쟁의 목표가 국난극복에서 국권회복으로 발전하였고, 그 방법도 단순한 무력투쟁이 아니라 擴戰되어 국제적 여론에 호소하는 외교적 수단까지 동원하였다. 즉 의병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민족보존의 열망을 실현코자 한 대표적 항일투쟁 교전세력이었다.

한말의 의병장 왕산 허위(1855-1908)는 전형적인 유생으로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등 일제의 침략적 도전으로 국난을 당하자 의병을 일으켜 구국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가 관직에 나간 1899년 이후 신학문을 접하면서 자주적 개화사상을 수용하여 스스로의 의식을 확대하고 종전의 춘추대의에 의해 봉기하였던 의병투쟁을 자주적 민족보존과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그는 前期 의병투쟁에서 金山義陣의 의병장으로서 활약하였고, 국왕의 詔勅에 의해 의병을 해산한 후에는 정부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엄격한 관직수행을 통해 구국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정계에서 은퇴한 뒤에는 일제의 한국침략이 본격화되어가자 다시 13도 창의군에 의한 후기 항일의병을 일으켜 민족 국권회복운동사상 그 명성을 남겼다.

이에 본고에서는 항일의병투쟁으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순국할때까지도 당당하게 일제의 침략을 신랄히 규탄하고 처절히 민족의 독립과 의병항쟁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던 왕산 허위의 일생을 통해 그의 구국의지와 애국사상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 2. 許薦의 成長과 學問

왕산 허위는 1855년(철종4년) 4월 2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임은리에서 아버지 廳秋軒許祚와 어머니 貞夫人 眞城 이씨사이에서 4형제중 막내로 태어났다.<sup>1)</sup> 본관은 김해이며 신라 가락국 수로왕의 후손으로, 자는 계형이며, 왕산은 아호이다. 그는 성장하여 초취로

1) 이동영, 『한국독립유공자열전』, 육우당기념회 간, 1993, 150쪽

박팽년의 후손 朴壽鉉의 딸인 순천박씨를 맞았고, 계비는 申在英의 딸인 평산신씨를 맞아들였는데, 신씨는 그가 항일독립운동을 할 때 동지로서 활동하다가 동삼성에서 작고하였다. 자제로는 아들·딸 각각 4명씩을 두었다.<sup>2)</sup>

그의 집안은 대대로 유학을 숭상하며 퇴계의 학통을 이어 온 전형적인 유학자 가문이었다.<sup>3)</sup> 따라서 그는 어렸을때부터 철저하게 전통적인 유교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는 5세때 이미 글을 읽을 줄 알아 7세때는 한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은 대장군이 되고(月爲大將軍)  
별은 만병이 되어 따르도다(星爲萬兵隨).

또 10세때에는

꽃을 꺾으니 손에 봄이요(折花春在手)  
물을 길으니 달빛이 문안에 드네(汲水月入門).

라는 뛰어난 감성의 시를 읊기도 하였다.

또한 15세때 이미 三經을 독파하였고, 詩經의 東服樂器의 제도와 書經의 璣衡曆象의 이치 및 易經의 河圖洛書의 심오한 뜻에 관심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적 욕구는 춘추, 강목과 같은 사서는

2) 앞의 책 『한국독립유공지사열전』, 150쪽

3) 강주진, 「허위의 정치적 경륜」, 『왕산허위의 사상과 구국의병항쟁』,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1995, 168-169쪽

물론 고대의 전술과 천문·지리 등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은데가 없었다.<sup>4)</sup>

이러한 그의 학문적 관심과 재능은 숙부인 海樵 허희와 19세 연장의 맏형인 방산 許薰의 지도로 형성된 것이었다. 허훈은 당대의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던 한학자로, 慶基殿參奉을 지냈으며,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아우인 許魯와 같이 의병을 일으켰다. 그의 서재에는 3만여권의 장서가 쌓여 있을 정도로 학문이 깊었으니 이를 허위도 탐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5)</sup> 또한 부친과 백조부인 태초당 許憲도 학문이 깊었으니 이러한 집안의 환경으로 그의 학문이 일찌감치 성장하였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나중에는 방산의 학문과 난형난제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그는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하여 예도에 어긋남이 없었고, 형제 간에는 우애가 두터웠다. 그리고 그는 유학의 기본 정치이념과 윤리관을 몸소 실천하였는데, 자신의 생활을 항상 검소하게 갖고 늘 굶은 배움을 입으며 그것이 선비의 본색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흉년이 들자 경상감사 이용직을 찾아가 기아에 허덕이는 농민을 구제하기 위함이라 하고 2만냥이라는 거금을 받아내어 농민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sup>6)</sup>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은 충렬과 의리정신에 의하여 구국을 위해 헌신한 인물을 다수 배출하였는데, 그를 포함하여 3명의 형제<sup>7)</sup>와 자

4) 『旺山許薰先生略傳』

5) 박성수, 「허위의 사상과 투쟁」, 216쪽

6) 『왕산허위선생약전』

7) 맏형인 방산은 중손으로 의병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치는 못하였으나 허위의 의병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셋째형인 성산 허환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허위와 의병을 일으켰고, 국치를 당한 후에는 동삼성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의 선봉에서 활약하였다.

제8), 척족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하다가 순국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가풍과 선조들의 가르침은 왕산이 곧은 선비이자 구국투쟁을 위한 항일의병투쟁에 앞장선 애국지사로서 그의 일생을 바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 3. 前期 義兵鬪爭과 改革案

허위의 의병활동은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이어 을미개혁에 의해 단발령이 공포되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96년 당시 전국 각지에서 유림들에 의한 의병투쟁이 일어나자 그는 李起夏·李殷贊·趙東鎬·李起燦 등과 의논하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2월 10일 김천 장날을 기해 김천읍으로 들어가 수백명의 의병을 모집하였다.<sup>9)</sup> 허위는 이기찬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참모장을 맡았다. 그리고 중군에는 梁濟安, 선봉에는 尹鴻采를 선임하였다.<sup>10)</sup>

이기찬부대가 起義한 것은 3월 10일로, 참모장인 허위는 항일투쟁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먼저 金山郡 金陵에 있는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압수한 후 무장을 갖추었다. 그리고 부대를 둘로 나누어 각각 김산과 성주에 진을 치고 무장세력의 강화를 위해 인근지역에 격

---

그후에도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뒤 다시 동삼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40년 타향에서 일생을 마쳤다.

8) 허위의 자제들도 국내와 동삼성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동영, 「왕산허위의 생애와 사상」, 『왕산허위의 사상과 구국의병항쟁』, 1995, 19-20쪽

9) 『왕산허위선생약전』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권(의병투쟁사), 244쪽

문을 발하여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때 허위의 격문은 애국의지를 발동시키는 감동적인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藹는 하나의 쓸모없는 유사이다. 지혜와 도량이 본래부터 사람 수호에 참여될 수 없고 干戈陳伍에 대한 일은 일찍이 들은 바도 없다. 그러니 이날에 이일을 일으킴 이 어찌 타당하다하랴마는 충분히 激動한 바 되어 손을 내리고 바라다만 볼 수 없기에 기필코 도적 괴수놈을 소탕코져 하는 것이다. 바라건데 여러분은 같은 소리로 응모해서 비록 몽둥이와 호미를 가지고도 달려들어 공격에서 용기를 도우면 적들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sup>11)</sup>

당시 허위가 중심이 된 이기찬 부대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할 수 있는 요새지인 추풍령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학문뿐만 아니라 병법에도 능한 허위의 탁월한 전략으로 규모는 물론 기세도 등등하였다. 이에 허위 등은 추풍령과 陝川지방을 장악하고 서울과 부산을 대구 金泉線에서 차단하기 위하여 대구로 진격하기로 작전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대구의 관군이 미처 전투태세를 갖추지 못한 성주의 의병부대를 급습한 뒤 김산의 의병부대까지 공격하여 허위가 주도하던 의병부대는 패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때 이은찬·조동호 등이 포로가 되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sup>12)</sup> 주로 전투능력이 부족한 유생과 농민들로 조직된 의병부대가 아직 전투태세를 충분히 갖추기도 전에 관군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겠다.

11) 『왕산선생문집』 참조

12) 『왕산허위선생약전』

하지만 허위는 굴하지 않고 관군의 공격에 대응치 못하고 패퇴하였던 의병들 중 포군 1백여명과 유생 7,80여명을 다시 집결시켜 상주와 김산의 동지들과 함께 직지사에서 의병을 재편성하였다.<sup>13)</sup> 이들은 진천·영동·황간·문경으로 진출하였는데, 이때에는 관군이나 일본군과의 교전은 없었다.

그런데 허위에게 속히 의병을 해산하라는 국왕의 勅諭가 근신 田慶雲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충군애국의 사상으로 기의했던 허위는 어명에 따라 의병을 해산시킬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고종의 아관파천에 의하여 갑오내각이 붕괴되고 단발령도 철회되어 의병들은 어느정도 의병투쟁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하고 해산에 동의하였다. 이는 구국과 충군이 일체가 되는 유교적인 성격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는 하지만 유학자로서, 또 충군의 본분을 다하고자 함이었으며, 이후 의병의 세력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의병은 언제든 지 기의할 수 있는 再擧의 여지는 남아 있었다.

허위는 의병을 해산한 뒤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만 열중하던 중 1899년 3월 申箕善의 추천으로 45세라는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가 엄격 공정하게 관직을 집행하였다. 그가 뒤늦게 관직에 나가게 된 것은 勵政圖治를 국왕에게 강력하게 진언하고 更張을 시도해 보고자 함에서였다. 처음 園丘壇 參奉을 제수받은후 永禧殿參奉, 昭慶園奉事, 成均館博士, 駐劄日本公使隨員, 中樞院議官, 平理院首班判事, 平理院署理裁判長을 거쳐 1904년 8월에는 議政府參贊, 10월에는 釐正所 의정관이 되었으며, 다시 이듬해에 秘書院丞 등을 역임하고 종2

13) 오세창, 「민족운동사상에서 본 왕산 허위의 위치」, 앞의 책 『왕산허위의 사상과 구국의병항쟁』, 76쪽

품 嘉善大夫의 위치에까지 이르렀다. 당시 허위는 관직을 매우 엄격하게 수행해 나갔다. 그는 법관의 직무를 맡았을 당시 “법관이 법률을 행치 못할 경우라면 사직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세도가의 청탁을 과감히 배척하고 공정하게 판결하였다.<sup>14)</sup> 또한 백성들의 밀린 송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백성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애썼다.<sup>15)</sup> 이에 평리원 수반판사때에는 당시 문란한 관기를 바로 잡고자 엄정하게 재판하였고, 만약 부정하게 기결된 사건이었다면 다시 번복시키기도 하였다.<sup>16)</sup> 이와 함께 그는 평리원의 기강확립에도 힘을 써 법질서를 바로 잡고 법관들의 품위유지에도 노력하였다.

이때 그는 장지연 등과도 교류를 추진하면서 자주적인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 주장하였고, 비록 전통유학을 학습하였지만 신학문도 두루 섭렵하면서 변화하는 세계사조에 대응하고자 개신유학의 입장을 보였다. 즉 그는 유교정신에 바탕을 두면서 근대화를 지향하여 만민평등과 부국강병을 주장하였다. 이에 그는 의정부 참찬으로 임명되었을 때 구국방안으로 10개의 개혁안을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學校를 세워 인재를 기르며, 재주가 우수한 자를 골라서 외국에 유학시킬 것
2. 軍政을 닦아서 불시의 변에 대비하고, 군사는 농사에서 나오고 농사는 군사에서 나오는 것이니 춘추로 무술을 연습하고 출입하면서 農事軍과 교환할 것

14) 『皇城新聞』 광무 8년 6월 1일자

15) 『皇城新聞』 광무 8년 8월 6일자

16) 이동영, 「왕산 허위의 생애와 사상」, 『왕산허위의 사상과 구국의병항쟁』,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1995, 22쪽

3. 철도를 증설하고 전기를 시설하여 교통과 산업에 이바지할 것
4. 煉炭을 사용하여 산림을 보호·양성할 것
5. 乾畚에는 水車를 써서 물을 대도록 할 것
6. 뽕나무를 심어 누에를 치고, 못을 파고 물고기를 기르며 또 六畜을 기르도록 할 것
7. 海港稅와 市場稅가 날로 더하고 달로 증가하여 상인들이 부지할 수가 없으니 공평히 정리할 것
8. 우리나라 지폐는 폐단이 심해서 물가는 몹시 높고 화폐는 지극히 천하여 공사의 허다한 財用이 고르지 못한 즉 은행을 설치하여 금·은·동전을 다시 통용할 것
9. 노비를 해방하고 嫡庶를 구분하지 말 것
10. 관직으로 공사를 행하고 실적이외에는 借啣하는 일을 일체 없앨 것<sup>17)</sup>

허위는 종전의 유학만으로는 나라를 구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마침내 신학문을 통해 개화사상을 수용함으로써 개혁안에도 변화된 그의 개혁사상을 반영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 조선정부는 친러수구파에 의해 장악됨으로 그의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는 의정부 참찬직을 사임하였다. 하지만 처음 군주에 대한 유교적 충의로써 출발한 그의 의병투쟁과 사상은 점차 근대적 구국운동으로 발전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1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제2권, 237쪽

#### 4. 檄文의 公布와 抗日鬪爭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뒤 동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 조인한 일제는 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허위는 李相天, 朴圭秉, 金璉植, 鄭薰模 등 동지들과 함께 일제의 한국침략을 폭로 규탄하며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전국 각지에 발송하였다.

백성들에게 삼가 大義를 통고한다. 우리들은 춘추라는 역사 책에서 복수를 중요시하고 왕은 강토를 지키기에 힘써야 한다고 들었다. 원수가 있으되 복수를 아니하면 사람이 사람노릇을 할 수 없고, 국토가 있으되 지키지 못하면 나라가 나라노릇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고금에 통하는 뜻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전번에 두 번이나 왕릉을 욕보였고, 근래 을미사변으로 국모를 죽여 우리의 원수가 되었으니 저들과 같은 하늘밑에 살 수가 없음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도 모두 아는 사실이다. 저들은 최근 용암포사건으로 러시아인을 내쫓을 구실을 삼아서 의로운 깃발을 올린다고 하여 돌연히 출병하여서 우리의 외부를 위협하고 협약을 맺었다.

첫째, 시정을 개선하고 충고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좋은 것 같으나 실은 우리 내정을 간섭하려는 것이다.

둘째, 대한의 황실 및 영토가 위협한 경우에는 필요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빨리 취한다. 이것은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으나 실은 우리의 국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셋째,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때에 사용한다. 이것은 말과 행동이 어긋남을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나라를 집어 삼키려는 뜻을 부드럽게 나타낸 것이다.

이 협약은 구절마다 公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국의 利를 취하는데 털끝 하나 놓치지 않았다. 서북지방의 고기잡이와 철도는 이미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 갔으며 말이 뛰달리듯 우리 땅에 들어와 쉬여 사니 국내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다 또 이 조약을 인정하였으니 일국의 강토는 어찌 되는가. 의리

로 보더라도 악독한 원수는 꼭 보복해야 하고, 시세로 보더라도 강토는 꼭 보전해야 한다.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느니보다 온갖 힘을 다하고 마음을 합하여 빨리 계책을 세우자. 진군하여 이기면 원수를 보복하고 국토를 지키며 불행히 죽으면 같이 죽자. 마음이 단결하여 한 소리에 서로 응하면 용기가 백배하고 충신의 갑옷과 인의의 창이 분발되어 곧 나아가니 저들의 강제와 오만은 격일 것이다. 여러 동지들에게 원하노니 이 피 쏟아지는 원한을 같이 하자. 비밀히 도내 각 동지에게 빨리 통고하여 옷을 찢어 깃발을 만들고 호미와 갈구리를 부셔 칼을 만들고 곳곳에 모여서 형세가 서로 돕고 머리와 끝이 서로 닿으면 우리들은 의군을 규합하여 순리에 좃게 되니 하늘이 도울 것이다. 저들과 러시아 군대가 서로 싸우니 병사가 전쟁 때문에 피곤하고 백성이 보급품 옮기기에 응접할 틈이 없다. 또 저들의 정당, 민당이 서로 갈등하여 국론이 미정되니 이러한 난국은 틀린 전략을 가져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필승의 기회인 때를 놓치지 말고 지지부진한 의심을 말자. 5월 30일 일시에 거사하면 종사가 다행이며 백성과 신하가 다행이다.<sup>18)</sup>

이러한 격문에 자극되어 각지에서는 항일의병투쟁이 전개되었는데, 평안도 연변에서는 군인들이 일본군대를 습격하였고, 보안회가 일제의 침략과 그들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규탄하는 대규모 민중시위를 전개하자 일제는 보안회를 급습하여 해산을 강요하는 한편 간부들을 체포해 가기도 하였다.

허위는 동년 10월 일본의 재정고문(目賀田種太郎: 메가타) 취임과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sup>19)</sup>, 12월에는 친일인사들이 조직한 일진회와 공진회 등 매국단체를 분쇄하기 위해 정우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sup>20)</sup> 그리고 다시 동지들과 함께 일제

1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940년도분

19) 『황성신문』 광무 8년 10월 13일자

『대한매일신보』 광무 8년 10월 13일자

20) 『대한매일신보』 광무8년 12월 24일자

침략을 규탄하고 백성들의 분투를 호소하는 격문을 전국 각지에 발송하였다.<sup>21)</sup>

이처럼 허위의 항일의병투쟁이 정우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자 일제는 1905년 1월 그를 일본헌병대에 구금하고 한국정부에 압력을 넣어 의정부 참찬을 사직케 한 뒤 석방하였다.

그러나 얼마후 다시 허위가 비서원승으로 임명을 받자<sup>22)</sup>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배척한 최익현의 상소사건을 조사하면서 허위도 연루시켜 조사하였다. 이때 일본공사는 허위를 불러 항일운동을 중단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그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국권과 독립을 보전하고자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공사의 요구를 당당하게 거부하였다.<sup>23)</sup> 그러자 일본 당국은 1905년 3월 11일 한일의정서를 반대하는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죄명으로 허위, 崔益鉉, 金鶴鎭 등 3명을 헌병대에 구금하였다.<sup>24)</sup> 일제는 다음날 최익현과 김학진을 석방하였으나 허위는 4개월동안 석방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을 취하니 일제는 어쩔 수 없이 동년 7월 13일 일제 헌병의 감시하에 석방하여 7월 19일 강제 귀향 조치하였다.<sup>25)</sup>

일제에 의해 강제로 압송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허위는 경상북도 지례군 三道峰아래에서 일제의 감시를 받으며 은거하고 있다가 일제

21) 박은식, 『한국통사』, 서울문화사, 1946, 171-172쪽

22) 『황성신문』 광무9년 3월 3일자

23) 『황성신문』 광무 9년 3월 14일자

24) 『황성신문』 광무 9년 3월 14일자

이현희, 「의병장 면암 최익현연구」, 『연구논문집』 37, 성신여대, 2001

25) 『대한매일신보』 광무 9년 7월 21일자

에게 완전히 국권을 탈취당하였다는 망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 5. 後期 義兵鬪爭과 13道倡義軍

1905년 11월 을사조약에 의하여 일제에게 국권을 탈취당하자 고양에서 은거하고 있던 허위는 격분하였다. 이에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고자 전국을 돌며 郭鍾錫, 玄尙健, 柳麟錫, 李學均 등 의병 동지들과 유생들을 만나 항일의병투쟁을 위한 방략을 모색하였다.<sup>26)</sup>

특히 일제는 헤이그특사파견을 빌미로 1907년 7월 19일 고종황제를 강제로 양위시키고, 7월 31일에는 한국군의 해산 조칙을 발표한 뒤 8월 1일 군대해산식을 훈련원에서 강행하였다. 그러나 한국군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朴星煥이 군대해산에 항의하여 해산 당일날 자결하자 장병들이 봉기하여 서소문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한국군인들의 항일투쟁은 계속되어 8월 5일 원주 진위대가 해산을 거부하며 閔肯鎬의 지휘하에 봉기하였고, 8월 9일에는 강화 진위대 군인들이 연기우 등의 지휘아래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며 경기도와 황해도 방면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의 의병과 합류하고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강제 해산된 한국군인들은 점차 각지의 의병세력과 연합함으로써 그동안 세력이 약화되었던 의병 활동에 새로운 활력이 되었고, 전투능력이 부족하였던 의병세력에게

2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909년 4월 ‘헌병대기밀문서’ 참조

무기를 공급하고 전투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줌으로 항일의병투쟁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허위는 본격적인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907년 9월 경기도 일대(연천·적성·양주·파주·이천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였다.<sup>27)</sup> 그리고 그는 해산된 강화 진위대의 延基羽부대를 합류시켜 실질적인 전투능력을 강화하였으며, 강원도 일대에서 활동하던 金奎植부대도 포섭하여 의병세력의 확대를 꾀하였다.

이후 허위의 의병부대는 여러 번에 걸쳐 일본군과 교전을 전개하였는데, 1907년 9월에 철원읍을 점령하고 연천군 우편취급소장을 비롯한 다수의 일본인을 포살하였고, 포천군 외북면에서 일본군 70여명과 교전하여 소탕하였다.<sup>28)</sup> 그리고 동년 10월에는 포천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였고,<sup>29)</sup> 병력 300여명을 투입하여 안현읍을 점령한 뒤 일진회 회원들을 색출, 포살하였다. 이어 동년 11월에는 포천군 고자촌에서 일본군 1개 소대와 교전하여 소탕하고,<sup>30)</sup> 철원읍을 다시 점령하여 우편취급소를 불태웠으며, 일본인 순사와 친일파들을 처형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허위의 의병부대는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제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1907년 12월에 이르러서는 그 세력이 수천명에 이르렀다.<sup>31)</sup>

27)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7일자

28)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일자

29)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3일자

30)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12일자

31)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1일자

이후 허위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李麟榮, 金秀敏 등 의병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sup>32)</sup> 보다 효과적인 의병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연합작전을 모색해 나갔다. 그 결과 그는 이인영 등과 13도 의병을 통합한 뒤 통합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서울 진공을하기로 합의하고 이인영을 총사령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이인영은 1907년 12월 전국(평안도·함경도 제외)의 의병세력에게 격문을 보내 경기도 양주로 집결할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다 음과 발송하였다.

用兵의 요결은 孤獨을 피하고 일치 단결하는 것은 즉 각도 의병을 통일하여 潰堤之勢로 京畿로 犯入하면 온 천하는 우리의 물건이 안되는 것이 없고 한국 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sup>33)</sup>

이 격문이 발송된 뒤 경상도의 申晳石, 전라도의 文泰洙, 충청도의 이강년, 강원도의 민공호, 황해도의 權重熙 등 전국의 의병장들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경기도 양주로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평안도의 方仁寬과 함경도의 鄭鳳俊 등 격문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의병연합전선에 참여키 위하여 양주로 왔다. 이때 집결한 의병수는 약 8천에서 1만명에 이르렀으며, 의병장들은 13도 의병 통합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의병총대장에 이인영, 군사장에 허위를 추대한 뒤 각 도별 부서를 편성하였다.

3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28일자

33) 앞의 『독립운동사』 제1권, 504-507쪽

13도 의병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관동 창의대장 민공호

호서 창의대장 이강년

교남 창의대장 박정빈

진동 창의대장 권중희

관서 창의대장 방인관

관북 창의대장 정봉준<sup>34)</sup>

이렇게 하여 13도 의병통합군이 결성되자 허위는 이인영과 함께 본격적으로 서울진공작전을 계획, 준비하였다. 그러나 총대장인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여 모든 임무를 허위에게 일임하고 귀향하게 됨으로 진공작전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의병통합군의 총지휘권을 가지게 된 허위는 서울 진공작전을 개시하여 1908년 1월말 우선 300명의 선발대를 이끌고 동대문밖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측근을 서울에 잠입시켜 각국 영사관에 일본의 불법적 침략사실을 성토했고 애국혈단인 의병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문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후속부대가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전투력이 미치지 못하여 퇴각할 수 밖에 없었다.<sup>35)</sup>

3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박은식전서』 상권, 466-467쪽

35) 『대한매일신보』 융희3년 7월 30일자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후 허위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전략보다 각 개별적 의병부대가 근거지를 중심으로 유격전을 전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러자 일제 당국은 삼엄한 경계망을 동원하여 경기도 일대의 의병 활동을 엄중 감시하였다.<sup>36)</sup>

이때 허위는 임진강 유역을 근거지로 삼아 군율을 정비하는 등의 병부대를 재정비하고, 인근 마을에 민폐가 없도록 조치하여 지역민들에게도 신뢰를 얻어 의병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다. 허위의 의병부대는 일본군의 진지를 기습하여 전선을 절단함으로써 통신을 마비시켰으며, 각지의 일본 관공서를 습격하여 일본군과 친일파를 소탕하는 등 활발한 의병항일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하여 일제 당국은 張博을 통하여 허위를 회유하고 의병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sup>37)</sup>. 신기선이 허위의 부하인 이병채에게 투항을 권고하였으나 그도 거부하고 죽을때까지 항쟁할 것을 통고하는<sup>38)</sup> 등 허위의 의병부대는 상하 모두가 의기충천해 있었다.

허위는 대규모 유격전의 실행을 위해 수천명의 의병을 적성 감박산에서 매일 훈련을 시키면서<sup>39)</sup> 양주 등 인근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하여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으며<sup>40)</sup>, 무기의 구입을 위해 국내에 밀사를 파견하는 한편 무기를 제조하는데도 힘을 쏟았다.<sup>41)</sup>

36) 『경성일보』 1908년 4월 9일자

3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제2회 이인영문답조서’ 참조

38)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8일자

39)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19일자

40)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8일자

41) 신용하, 「허위의 의병활동」, 앞의 책 『왕산허위의 사상과 구국의병항쟁』, 206쪽

이에 허위는 다시 국권회복을 위한 대규모 의병항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1908년 4월 21일 이강년, 이인영, 유인석, 박정빈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 통문을 발송하여 의병항일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sup>42)</sup> 그리고 동년 5월 일제 통감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13도 의병연합부대가 다시 한번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 성공한 후 실현하고자 하였다.

1. 太皇帝(고종황제)를 복위할 것
2. 외교권을 還歸시킬 것
3. 통감부를 철거할 것
4. 일본인의 敍任을 시행치 말 것
5. 刑罰權의 자유를 회복할 것
6. 通信權의 자유를 회복할 것
7. 警察權의 자유를 회복할 것
8. 정부 조직의 자유를 회복할 것
9. 군대시설의 자유를 회복할 것
10. 衣冠을 복고할 것
11. 을미, 을사, 정미의 국적을 자유로이 처참케 할 것
12. 내지(한국)의 산림, 저수지, 금, 은, 동광을 침해하지 말 것
13. 내지의 부동산 매매를 하지 말 것
14. 航海權을 환귀할 것
15. 魚採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

42)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30일자

16. 教育權의 자유를 회복할 것
17. 出版權의 자유를 회복할 것
18. 軍用地를 還歸시킬 것
19. 일본인 거류지를 還歸시킬 것
20. 철도를 還歸시키고 물러갈 것
21. 學舍 이외를 자유롭게 해산시킬 것
22. 海關稅法의 자유를 회복할 것
23. 일본인의 상업을 제한할 것
24. 일본인의 상업 물품을 제한할 것
25. 일본인의 상륙을 제한할 것
26. 國債를 시행치 말 것
27. 인민의 손해를 배상할 것
28. 일본 은행권을 시행하지 말 것
29. 지방의 일본군 병참을 철거할 것
30. 일본에 있는 망명객등을 속히 捕來할 것<sup>43)</sup>

그러나 허위는 일본군에 포로가 된 의병에 의해 그의 은신처를 알게 된 일본군의 급습으로 체포되어 결국 그가 숙원하던 대규모 서울 진공은 좌절되고 말았으며, 의병부대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4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융희 2년 5월 19일

## 6. 許蔭의 殉國과 서대문형무소

허위는 경기도 영평군 서면 유동의 박정연의 집에 은신하면서 제2차 서울진공작전을 구상하던 중 포로가 되어 일본군의 고문을 이기지 못한 의병의 실토로<sup>44)</sup> 오오타(太田) 일본군 헌병대위 이하 12명의 일본 헌병대의 급습을 받고 1908년 6월 11일 체포당하고 말았다.<sup>45)</sup> 이에 허위는 동년 6월 17일 서울로 이송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오오타대위의 취조에서

한국의 부흥을 꾀하는 이유는 결코 한국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실은 동양평화에 입각해서이다. 만일 일본이 한국을 병탄한다면 중국은 필히 일본을 능멸할 것이어서 중일양국의 교의는 원만치 못할 것이니 어떻게 동양평화를 유지하겠는가. 그러므로 먼저 일본은 성심 성의껏 한국을 돕고 다시 진심으로 중국을 돕는다면 이에 일본은 맹주로서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늘 내가 한국의 부흥에 힘을 다하는 것은 실로 세계의 대세를 보고 일본을 위해서나 또는 한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오늘 잡혀가는 옥을 당한다고 해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다. 바라건대 하루 속히 경성에 가서 일본 당국의 대관에게 이 微哀를 말하겠으며, 만일 기회가 된다면 일본정부의 당사자에게 극언할 생각이다<sup>46)</sup>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의병투쟁은 한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동양평화를 위해서임을 당당하게 표명하였다. 이처럼 그는 의병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는 동양평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양자는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그의 구국사상에는 동양평화론이

44) 小林徳郎, 『明石元二郎』 상권, 昭和3년 427쪽

45) 『황성신문』 1908년 6월 19일자

46) 앞의 『明石元二郎』 상권, 428-429쪽

전제된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과 함께 역사상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허위가 순국하기 직전 자식들에게 남긴 유서에도 언급되어 동양평화론에 대한 깊은 신념을 읽을 수 있다.

너희들은 우둔하기가 나보다 심한 것 같으니 지금의 시국과 정책을 말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에 박아한 대군자를 만나 학업을 닦아서 그 빼내지 못한 것을 빼내고 밝혀서 세상을 세상을 위한 좋은 양재가 되어 면회아국권하고 유지 동양평화하게 된다면 후생이 두렵다는 것을 어찌 알게 될 것이 아니냐.<sup>47)</sup>

서울로 압송된 허위는 일본군 헌병사령부에 구속되어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된 뒤 일본 헌병사령관 아카시(明石元二郎)의 심문을 받았다. 심문과정에서 허위 조금도 굴함이 없이 동양평화를 위한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일제의 한국침략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일본은 말로는 한국 보호를 주장하지만 내실은 한국을 멸망시키려고 하는禍心을 포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좌시할 수 없어 한 목숨을 버려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sup>48)</sup>

이에 대해 아카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하는 것과 비유한다면 병자를 안마하는 것과 같다. 팔다리의 몸둥이를 주무르고 두드리면 일견 병자를 고통에 떨어뜨리는 것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마침내는 병자의 병

47) 『왕산선생문집』 권1, 331쪽

48) 앞의 책 『明石元二郎』 상권, 243-245쪽

은 낮게 될 것이다.<sup>49)</sup>

라고 설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허위는 책상위의 연필을 가리키며

이 연필을 보라. 일견 붉은 색이지만 그 내면은 남색이지 않은가. 귀국이(일제) 한국을 대하는 것이 이와 같다. 그 겉질과 내면이 크게 다름은 다를 것도 없이 명백한 것이다.<sup>50)</sup>

라고 거짓된 회유를 반박하였다. 이에 훗날 아카시는 비록 적국의 관리였으나 허위에 대해

몇백 몇천의 의병장 가운데서도 閱歷과 성망이 뛰어나고 한학에 조예가 깊으며 특히 역학에 밝아 중민의 심기는 바 되어 이르기를 선생의 경칭으로 대한 사람이다

라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허위로 인해 의병투쟁이 발전하였음을 인식하고

생각컨데 폭도 토멸기 최후의 비괴 허위의 체포로 말미암아 폭도의 세력은 거의 궤멸하고 그 성질은 일변하기에 이르렀으니 곧 암살의 시대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허위의 당당한 인품을 보고 감탄하여 그를 참된 나라의 鬪士라고 꼽았다.

---

49) 상동

50) 상동

계속하여 허위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인 판·검사들이 의병을 일으킨 이유를 묻자

너희들은 비록 한국에서 났으나 한결같이 교활한 왜적의 주구이니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나는 대한국의 당당한 의병장이다. 너희들과 변론하고자 하지 않으니 다시는 묻지 말라.<sup>51)</sup>

고 꾸짖으며, 그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또 일본인 재판관이

의병을 일으키게 한 것은 누구이며, 대장은 누구냐?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면서

의병이 일어나게 한 것은 이등박문이요, 대장은 바로 나다.

라고 대답하였다. 다시 재판관이 어찌하여 이등박문이냐고 묻자

이등박문이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지 않았다면 의병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의병을 일으킨 것은 이등박문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

라고 일제의 침략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그후 허위는 동년 7월 7일 평리원으로 회송되어<sup>52)</sup> 경성공소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청한 가운데 제1회 심문을 받았다. 이때 재판장이 허위임을 확인하자 그는

---

51) 상동

52) 『경성일보』 1908년 7월 8일자

나는 허위이지만 그대들의 심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그대들은 모두 일본인이요, 나는 한국인인즉 일본인의 재판받을 수 없다.

고 심문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재판장은

우리는 비록 일본인이나 한국정부에 초빙되었을즉 한국의 사법관일 뿐만 아니라 또 사법관은 한국 황제폐하의 어칙에 따라 법률에 준거하여 재판하는 것이다.

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허위는

그것은 결코 태황제 폐하의 참뜻이 아니시다. 한일협정도 일본이 강력으로 압박하여 성립한데 불과하며, 소위 법률이란 것도 그대들이 마음대로 제정한 것이니 우리들 한국인은 그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고 반박하였다. 다시 재판장이

그러나 그대가 포박되었을때는 일본 헌병의 취조에 대답하지 않았는가?

라고 묻자 그는

그때는 서로 담화였지만 그대들의 심문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

고 응수하였다. 재판장은

대답하고 싶지 않다면 대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헌병의 조서에 따라 판결할테니 어떠한가?

라고 위협하자 허위는 매우 당당한 태도로

그것 또한 그대들의 마음대로이다. 한번 죽음은 본시 각오한 바 있다.

고 대꾸하니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sup>53)</sup>

결국 동년 9월 18일 일본 재판장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고, 9월 22일 그의 가족들에 의해 상고가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었다.<sup>54)</sup>

사형선고를 받은 허위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두 아들에게 유서를 보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라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죽지 않고 어찌 하겠나.

내 지금 죽음의 자리를 얻었으니 너희형제는 와서 보도록 하라.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 일본인 승려가 불경을 외어주려 하자 허위는

충의의 귀신은 스스로 마땅히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혹 지옥으로 떨어진대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 복을 얻으랴.<sup>55)</sup>

라고 하면서 단호히 거절하였다. 또한 한국인 검사가

시신을 거둘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묻자 그는

---

53)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19일자

5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450-451쪽

55) 앞의 책 『明石元二郎』 상권. 245쪽

사후의 거둬들이는 어찌 패념할 것인가. 이 옥중에서 씌어도 좋으니 속히 형을 집행하라.

고 답하였다.<sup>56)</sup>

마침내 그는 동년 10월 21일 오전 10시 사형이 집행되어 54세의 일기로 항일투쟁의 산 증거인 서대문 형무소(경성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여 순국하였다.<sup>57)</sup>

이처럼 허위는 1896년 춘추대의론에 입각하여 전기 의병항쟁을 전개한 이래 국권회복을 위해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하여 순국할 때까지 일생을 끝은 관리이자 의병으로써 부국강병과 국권수호를 위해 헌신하였다. 따라서 그의 구국사상은 계승되어 순국한 후에도 그의 부하들에 의하여 의병항쟁은 계속되었고 이후 민족독립투쟁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 7. 結 論

허위는 철저한 유교적 환경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유생으로서 근왕적 충의사상이 투철하였다. 그러나 관직에 나간 직후 신학문을 접하면서 의식체계에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는 자주적 개화사상을 수용하여 스스로 의식을 확대함으로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에 그는 초기에는 위정척사에 의한 춘추대의론을 명분으로 의병

56)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4일자

57)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22일자

을 일으켰으나 1905년 이후에는 국권회복을 위한 민족운동으로써의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의병투쟁사상 초유의 대작전이었던 13도 창의군에 의한 서울진공작전 당시 軍事長으로 일본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물론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돌려 일제 침략의 불법성과 한국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등 의병투쟁을 단순한 무력투쟁이 아닌 국제사회를 인식한 항일투쟁노선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또한 그는 의정부 참찬으로 재직시 10개조의 국정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진보적인 개혁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의병투쟁에 대해 오직 일본과 차마 함께 이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항일의식을 피력함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주는 큰 업적을 남겼으며, 자신의 의병투쟁이 비단 한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며 한국이 독립이 되어야 동양평화가 유지된다고는 동양평화론을 강조하였다. 이에 그를 심문하였던 아카시 일본군헌병사령관은 그의 큰 인물됨에 마음속으로 감복하였다고 실토했다.

또한 안중근의사도 의병장 허위에 대하여

허위와 같이 盡忠竭力과 용맹의 기상을 동포 2천만민이 가졌다면 오늘의 國辱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관들은 자기 있음을 알고 나라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관계의 고등의 충신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평하여 허위의 민족의식과 항일투쟁의 위대함을 기렸다.

이처럼 한말 의병투쟁 과정에서 허위의 위상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의병투쟁사의 커다란 맥을 형성하였다.

1896년 의병을 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08년 일본군에게 체포당할 때까지 그의 항일투쟁은 줄기차게 전개되었으며,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그곳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순국할때에도 당당하게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며 항일의지와 기상을 불태움으로 후대에 애국정신의 전형을 남겨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서대문형무소가 항일투쟁의 산실이자 종착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개관 3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 義兵戰爭과 西大門刑務所

---

발행일 : 2001. 11. 2.

발행인 : 서대문구청장 이 정 규

편집인 : 문화체육과장 정 순 영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전화 : 363-9750~1 / 전송 : 363-9752